금수강산

9

주체106(2017)
루계 제337호 월간

 ISSN 1727—9062

사회주의전진가

2. 일심의 힘으로 나가는 우리
제힘을 믿고서 강해진 우리
떨쳐온 승리를 계속 이어서
더 큰 승리 안아오리라
(후렴)

3. 수령 당 인민이 하나로 뭉친
강국의 이 기상 꺾을자 없다
진두에 위대한 당기 날리는
이 길은 승리하는 길
(후렴)

근로자들의 즐거움

릉라유희장에서 근로자들이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있다.

회전비행기에 몸을 실은 사람들이 억누를수 없는 흥분과 기쁨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방은심

차 례

인민의 희열넘친다

거창한 창조와 변혁속에 인민의 리상과 문명이 날로 꽃펴나는것은 오늘 조국의 현실이다.

평범한 근로자들을 위한 유희장과 유원지, 공원을 비롯한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계속 일떠서고 그 어디서나 사회주의문명을 창조하며 향유하는 인민의 기쁨과 랑만에 넘친 웃음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조국인민이 누리고있는 풍부한 문화정서생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주체37(1948)년 9월 9일]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인민이 주인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공화국의 창건은 조국인민의 생활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공화국의 창건과 더불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며 그들을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키우기 위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을 겪고 나라의 형편이 참으로 어려운 속에서도 평양대극장과 평양학생소년궁전을 비롯한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을 나라의 곳곳에 일떠세우도록 하시고 그 사업에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그대로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와 날로 높아가는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꾸리도록 해주시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대학습당, 빙상관, **김일성**경기장, 청춘거리체육촌, 5월1일경기장, 개선청년공원유희장을 비롯한 수많은 기념비적건축물들이 일떠서 인민의 문화정서생활은 더욱 다양해지고 풍부해졌다.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으로 전대미문의 시련이 겹쌓이였던 고난의 시기에도 정방산과 구월산, 칠보산, 룡문대굴과 송암동굴이 인민의 유원지로 훌륭히 꾸려지고 마음껏 즐거운 휴식을 할수 있도록 온갖 조치들이 취해졌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뿌려놓으신 사회주의문명의 씨앗들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더욱 활짝 꽃펴나고있다.

인민생활문제를 천만가지 국사가운데서 제일국사로 내세우시고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높이에서 누리도록 하자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문수물놀이장의 일부

문수물놀이장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2(2013)년 9월

결심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완공을 앞둔 문수물놀이장의 유리로 지붕을 씌운 실내물놀이장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문득 한곳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여기에 해가림대를 설치해주어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실내물놀이장은 말그대로 실내인것으로 하여 이곳에 해가림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해본 사람은 누구도 없었다. 실내물놀이장을 리용하게 될 인민들이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느낄세라 그토록 마음쓰신 그이이시였다.

문수물놀이장뿐이 아닌 기념비적건축물들마다에 이런 감동깊은 이야기들이 무수히 새겨져있다.

주체102(2013)년 8월 건설이 한창이던 마식령스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마식령스키장은 우리 인민들이 먼 후날에도 덕을 보며 만복을 누리게 될 기념비적창조물이며 문명국의 상징의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세계일류급의 스키장을 건설하여 인민들과 청소년들에게 더욱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자고 말씀하시였다.

건설중인 미림승마구락부를 찾으시여서도 미림승마구락부는 우리 인민이 보다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말타기에 편리하게 잔디 및 토사주로를 잘 닦으며 실내승마훈련장에 톱밥 같은것을 두툼하게 깔아줄데 대한 문제, 야외에 원형승마훈련장을 더 건설하고 토사주로에서 말을 탈 때 먼지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승마주로 곳곳에 사람들이 말에서 쉽게 오르내릴수 있는 시설물들도 설치해줄데 대한 문제, 승마운동을 하고나서 피로를 풀수 있게 현대적인 기능회복시설을 꾸려줄데 대한 문제 등 미림승마구락부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잘 꾸리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신 그이이시였다.

시대를 대표하고 인민들이 쓰고살 건축물들은 먼 후날에도 손색없이 완전무결해야 하며 사회주의문명국의 표본이 될수 있는 최고의 수준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이 그이의 숭고한 뜻이다.

그 나날 건축가들이 세계를 보는 눈을 틔우고 시야를 넓히며 수준을 높이도록 하시기 위하여 중요한 자료들도 내려보내주시고 적극적인 조치들도 취해주신 그이, 비범한 안목으로 건축물들의 형성안들을 빠짐없이 지도해주시고 손수 그림까지 그려가시면서 귀중한 시간을 바쳐가신 그이의 령도는 세상에 둘도 없는 문명의 창조물들을 낳게 한 원천이였다.

언제인가 대동강에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를 띄우도록 해주신 그이께서는 인민에 대한 다함없는 사랑과 무한한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무지개》호는 인민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비추어볼 때 하나의 모래알이나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래알들을 모아 큰 산을 쌓아야 합니다. …

릉라인민유원지, 통일거리운동쎈터, 문수물놀이장,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 연풍과학자휴양소,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자연박물관, 개건된 중앙동물원, 평양체육관, **김일성**경기장, 청춘거리체육촌…

그이께서 인민을 위해 내짚으신 헌신의 걸음걸음마다에서 문명강국의 설계도가 펼쳐지고 행복의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올랐으며 곳곳에 일떠

미림승마구락부에서

비행관광도 진행한다.

선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서 각계층 근로자들과 아이들이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있다.

릉라곱등어관에서는 바다의 곱등어가 재주를 부리며 도시의 한복판에서 인민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주고있다.

손님들을 환영하는 지느러미기교, 집체조약하여 높이 매달린 공을 주둥이로 치는 기교, 원을 그리며 물결을 헤가르는 기교, 여러가지 선률에 맞추어 꼬리로 장단을 치는 기교, 조교사와 함께 잠수도 하며 각이한 률동을 펼쳐보이는 기교 등 곱등어들의 신기한 재주도 그러하지만 물개들의 다양한 기교동작들 또한 볼만 하여 무릎을 치고 배를 그러쥐며 사람들모두가 환희에 잠겨있는 릉라곱등어관,

이것이 어찌 릉라곱등어관에만 펼쳐진 화폭이랴.

멋들어지게 개건된 중앙동물원에서는 인민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더해주는 각이한 동물들의 재주가 손님들을 어서 오라 부르고 계절의 변화를 모르는 문수물놀이장에서는 물놀이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의 떠들썩한 웃음소리로 매일과 같이 흥성이고있다. 물미끄럼대들에서 좋아라 팔을 저으며 미끄러져내리는 사람들, 파도물놀이장에서 세찬 물결을 헤가르기도 하고 수영수조들을 오가며 헤염을 치는 청춘남녀들, 아동수조에서 물장구를 치며 뛰노는 아이들…

사람들 누구나 문수물놀이장을 기쁨과 웃음이 파도처럼 설레이는 물의 락원이라고 부르며 하루종일 떠날줄 모르고있다.

그런가 하면 어제날의 로라스케트타는 바람이 오늘에는 미림승마구락부와 마식령스키장에서 승마와 스키운동바람으로 이어지고있다.

뿐만아니라 온 나라 곳곳에 로라스케트장, 배구장, 롱구장 등이 갖추어진 체육공원들이 일떠서 그 누구라 할것없이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있다.

하기에 조국인민이 누리는 문명생활을 직접 목격한 해외

마식령스키장에서 겨울철야영의 나날을 보내고있는 학생소년들

자연박물관에서

여름철의 마진해수욕장

흥성이는 로라스케트장 주체105(2016)년 촬영

◇ 일 화 ◇

이른새벽, 깊은 밤에도 찾아오시여

주체102(2013)년 9월 29일 이른새벽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문수물놀이장건설장을 찾으시였다. 사위는 아직 캄캄한데 경애하는 그이를 다시금 건설장에서 뵈옵는 일군들은 놀라움과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이 새벽에 또다시 건설장을 찾으시다니?!

그이께서는 9월에만도 문수물놀이장건설장을 여러차례 찾아주셨던것이다.

격정에 젖어있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 문수물놀이장의 여러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려 새벽에 혼자 조용히 나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 타고오신 차에는 대형벽시계가 실려있었다.

그 대형벽시계로 말하면 바로 며칠전에 문수물놀이장건설장을 찾으신 그이께서 실내물놀이장의 곳곳을 돌아보시며 이곳을 리용하는 사람들이 시간가는줄 모르고 물놀이를 할수 있으므로 벽면들에 시계도 설치해주어 시간을 알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대형벽시계들을 자신께서 보내주겠으니 설치해주라고 이르신것이였다.

그날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온 나라의 크고 작은 일들을 돌보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그이께서는 대형벽시계에 대하여 깊이 관심하시고 친히 싣고오신것이였다.

대형벽시계를 받아안은 일군들은 눈시울을 적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동틀무렵까지 물놀이장의 곳곳을 돌아보시며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고 건설장을 떠나시였다.

그해 10월 초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이 잠든 깊은 밤 문수물놀이장을 또다시 찾으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문수물놀이장의 물미끄럼대들중에서 제일 높은 급강하물미끄럼대의 정점에까지 친히 오르시여 시공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사람들이 맨살을 드러낸 상태에서 급강하물미끄럼대를 리용하겠는데 그들이 손톱 하나 긁히지 않도록 미끄럼주로는 물론 올라오는 계단들과 란간들에 대한 연마를 잘해주어야 하겠다고 각근히 이르시였다.

참으로 물놀이장에 출렁이는 맑은 물이며 야외물놀이장의 물미끄럼대들과 수조들의 타일에도 그리고 사람들의 흥취를 한껏 돋구어주는 음악이며 탈의실의 거울과 자그마한 건발기, 미끄럼대결의 발판 등에도 인민을 제일로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이 뜨겁게 깃들어있는것이다.

하기에 문수물놀이장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을 길이 전하고 인민들이 맞고 보내는 기쁨의 나날들을 끝없이 새기며 인민의 재부로 빛을 뿌리고있다.

본사기자

동포들은 창조적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된 인민대중의 힘에 의해 조국은 자립적토대에 뿌리를 둔 조선식문명, 먼 후날에도 손색없는 완벽한 문명, 남들이 앞서간 열, 백걸음을 한달음에 따라잡는 초음속의 문명을 창조해나가고있다고 말하고있다.

온 나라에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을 일떠세워 정신,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인민의 요구를 실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깊은 관심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조국땅우에는 머지않아 온 세계가 부러워마지 않는 사회주의문명국이 일떠서게 될것이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인민의 봉사기지로 되게 하시려고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특색있게 일떠선 우리 류경원에는 날마다 인민의 기쁨이 넘쳐나고 있다.

시원하게 목욕을 하고나서 휴식홀들에서 거뜬한 기분으로 유쾌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리발실과 미용실에서 달라진 머리모양을 거울에 비쳐보며 흡족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치료체육실에서는 여러가지 기재들을 리용하는 사람들의 혈기왕성하고 건강미넘치는 모습도 볼수 있다.

나는 이처럼 희열에 넘쳐있는 인민들의 모습을 볼 때면 우리 류경원에 깃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인민사랑이 되새겨져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다.

주체101(2012)년 11월 어느날 준공을 앞둔 류경원을 또다시 찾아주신 그이께서는 현관으로 들어서시여 갖가지 꽃들로 장식되여있는 화단을 중심으로 의자들을 빙 둘러놓은 휴식홀을 기쁨속에 바라보시였다. 화단을 바라보시며 잠시 생각에 잠기셨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휴식홀의 바닥에 잔디밭과 같은 자연환경을 조성하느라고 풀색주단을 깔아놓았는데 비위생적이라고 하시면서 여기에는 쪽널을 까는것이 좋다고, 자단나무쪽널을 보내주겠으니 주단을 걷어내고 그것을 깔아야 하겠다고, 자단나무쪽널은 좀 질은 색인데 그것만 깔면 원형휴식홀이 확 달라질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류경원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대중봉사기지로 꾸려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가르치심과 보살피심에는 끝이 없었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이 별치 않게 보아왔던 한증칸의 단 몇℃의 온도차이도 그저 스쳐지나지 않으시였고 랭실에 들어오는 한점의 바람도 허용하지 않으시였다.

인민들이 리용해야 할 시설물이기에 이처럼 세부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돌리신것이였다.

이날만이 아니였다.

건설이 한창이던 그해 5월에 이어 7월에도 이곳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원형휴식홀의 공간이 비여있는것을 보시고 이 공간에 화단을 만들어놓으라고, 여기가 휴식홀인것만큼 사람들이 휴식하기 편리하게 의자도 놓아주고 매대도 꾸려놓아 손님들에게 청량음료 같은것을 봉사해주라고 하시였다. 한증방들을 돌아보시면서는 사람들이 한증을 편안하게 앉아서 할수 있게 의자를 놓아주고 그 소독도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한증방휴식홀의 의자에는 일반천을 씌우지 말고 소독수로 닦아내도 젖지 않게 수지물을 입힌 빳빳한 천을 씌워야 한다고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또한 치료체육실의 기재는 어떻게 마련하려고 하는가를 알아보시고 일광욕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리용할수 있게 자외선침대도 보내주겠다고 하시였다.

리발실을 돌아보시면서는 소독대의 위치도 바로잡아주시고 자외선소독기를 놓을 밀차까지 보내주도록 친히 대책을 세워주신 원수님이시였다.

그날 그이께서는 류경원건설장을 떠나시기에 앞서 일군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이렇게 당부하시였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완공되는 날까지 일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선물인 류경원을 손색없이 꾸려 류경원이 인민들에게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인민의 참된 봉사기지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인민들이 사회주의문화의 창조자, 향유자로서의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 뜨거운 사랑과 정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낮이나 밤이나 인민의 행복을 위해 위대한 사랑의 력사를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인민의 모든 꿈 이루어질 사회주의문명국의 래일은 반드시 앞당겨질것이다.

류경원 지배인 리근남

춤추는 릉라도

릉라도가 사람들로 련일 흥성이고있다.

얼마전 릉라인민유원지를 찾은 우리가 먼저 들린 곳은 릉라곱등어관이였다.

이곳에서는 곱등어들이 조교사들의 손동작에 따라 집체조약을 하는가 하면 공중공치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기교동작들을 솜씨있게 펼쳐놓고있었는데 그때마다 《야-》 하는 관중들의 환성과 함께 박수소리가 연해연방 터져나왔다. 바다의 《희극배우》라고 불리우는 물개들의 출연도 볼만 하였다. 조교사가 던지는 공을 주둥이에 올려놓고 재롱을 부리며 앞발로 서기도 하고 녀자손님과 뽀뽀하라는 소개자의 말에 부끄러운듯 앞발로 주둥이를 가리우는 생동한 형상도 하여 장내에 웃음바다가 펼쳐지게 하였다.

공연은 끝났지만 관중들은 좀처럼 일어설줄 몰랐다. 함경북도 화대군에서 왔다는 송영성로인은 이런 희귀한 공연을 처음 보았다고 하면서 10년은 젊어진것 같다고,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한 모습은 립체률동영화관에서 영화들을 흥분속에 보고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에서도 볼수 있었다. 손님들은 저저마다 3차원적인 화면효과가 매우 질감이 있다고, 립체음악과 함께 좌석의 률동으로 매력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떠들썩하게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어린애마냥 좋아하는 그들과 헤여져 릉라물놀이장으로 향하였다.

하루에도 수천명의 근로자들이 찾아온다는 이곳 일군의 말대로 물놀이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다. 모래터배구장이며 롱구장에서 경기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찔하게 높은 물미끄럼대우에서 물갈기를 날리며 지쳐내리는 사람들, 조약대우에서 물에 뛰여드는 청년들, 수조에서 물장구를 치며 깔깔 웃어대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그중에서도 물미끄럼대를 타고내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였다. 눈을 뜨지 못하고 탄성을 지르며 경사급한 물미끄럼대를 타고내리는 처녀들, 원통식으로 된 물미끄럼대를 벗어나서는 《와하하-》 웃음을 터치는 늙은이들, 한번 더 탈 용기가 있다며 계단을 한달음에 뛰여오르는 청년들의 모습은 참으로 이채로운 광경이였다.

그런가 하면 각이한 높이의 조약대들에 나선 사람들이 련속 물속으로 첨벙첨벙 뛰여들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자기가 뛰여들기라도 하듯 환성을 올리며 박수를 아끼지 않고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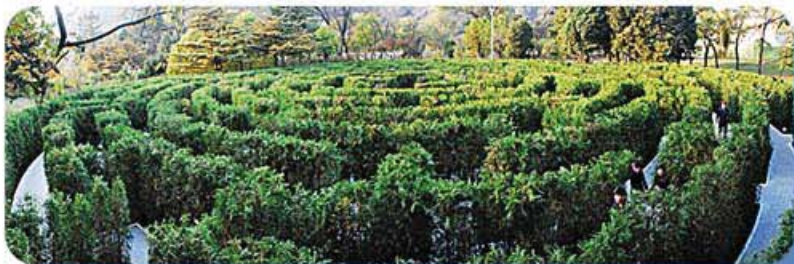
뭐니뭐니해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제일 높은 곳은 릉라유희장인가싶다.

하늘을 날아예는 매처럼 솟구치기도 하고 땅을 향해 내리꽂히기도 하는 회전매며 튕기는 용수철같이 순간에 허공에 들리워 즐거움에 휩싸이게 하는 튕성회전반, 우주에 있는 행성들을 련상케 하는 우주비행반 등 그 어느 유희기구에서나 사람들은 환희와 랑만에 넘쳐있었다. 저녁어둠이 깃들며 불야경이 펼쳐지자 유희장은 더욱 고조를 이루었다.

우리와 만난 평양시 동대원구역에서 사는 지영철은 방금 회전매를 타보았는데 마치 하늘을 나는 매가 된듯싶었고 천진했던 어린시절을 다시 찾은 심정이였다고 하였으며 평양목재건구공장의 리연화는 수직회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있는 곱등어들의 재주

릉라물놀이장에서

미니골프에 맛을 들이고

미로에 빠져

전그네를 타는 순간 온몸이 긴장해졌지만 유희기구의 정점에 오르니 아름다운 평양의 밤풍경이 한눈에 안겨와 정말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보는 기분이였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즐거움과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느라니 인민들에게 안겨줄 이 릉라인민유원지가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되도록 헌신과 로고를 다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가슴에 안겨왔습니다. 인민을 위한 원수님의 그 사랑을 안고 이 릉라도가 마치 인민의 기쁨속에, 웃음속에 춤을 추는것만 같습니다.》

릉라도가 인민의 기쁨속에, 웃음속에 춤을 춘다!

이 말을 되새기느라니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당(조선로동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만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것이 당의 의도라고 그토록 절절하게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우리는 뜨거운 격정속에 인민의 웃음 차넘치는 유원지의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시간가는줄 모른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웃음과 탄성속에

온통 내 모습뿐

은반우에 넘치는 즐거움

가만히 있어도 땀방울이 송골송골 내돋는 무더위에 사람들이 즐겨찾는 곳은 해수욕장만이 아니다.

우리는 얼마전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마음껏 은반우를 달릴수 있는 인민야외빙상장을 찾았다. 빙상장은 많은 빙상애호가들과 근로자들, 청소년들로 흥성이고있었다.

우리와 만난 스케트기술보급원 고향임은 빙상장에는 급동속도 및 유지가 첨단수준인 랭동설비들이 갖추어져있어 얼음판의 굳기와 질이 매우 좋다고, 이렇게 한여름철에 수많은 손님들이 아무리 스케트를 타도 얼음판이 못쓰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것이였다.

스케트를 내주는 곳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스케트를 골라잡은 손님들은 얼음판우에 저저마다 경쟁적으로 들어섰다.

벽에 설치된 전광판에서 울려나오는 경쾌한 화면반주음악에 맞추어 스케트를 타는 사람들의 모습이야말로 삼복철의 이채로운 풍경이였다.

흰 대리석같은 얼음판우에서는 전문선수 못지않게 날렵한 동작으로 스케트를 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방조를 받아가며 스케트기술을 배우는 사람들도 있었다. 무용을 하듯 두팔을 곱게 저으며 휘거스케트를 타는 한 유치원어린이의 모양은 마치도 은반우를 날으는 눈송이같아 사람들의 눈길을 모았다.

그런가 하면 서툰 솜씨여서 얼음판에 엉덩방아를 찧고 다시 일어났다가는 또다시 넘어지군 하는 한 대학생의 모습은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스케트날을 갈아주는 곳에서는 장철구평양상업종합대학에서 공부하는 강송희가 함께 온 동무들에게 휘거용스케트의 날가는 방법을 전문가 못지않게 설명해주어 뭇사람들의 감탄어린 시선을 받기도 하였다.

평천구역 륙교1동에서 산다는 52살 난 김복실은 딸의 손목에 이끌려 이곳에 와서 30년만에 스케트를 타보는데 마음은 10대의 소녀시절로 되돌아간듯싶다고, 기분이 정말 상쾌하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어느 한 중앙기관에서 사무원으로 일하는 정남철은 처음에는 스케트를 탈줄 몰라 애를 먹었는데 며칠동안 이곳에서 직심스레 훈련한 결과 이제는 여러가지 기교동작도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하는것이였다.

빙상작업반 반장인 리향미는 《우리 인민야외빙상장에는 스케트를 내주는 곳과 스케트날을 갈아주는 곳, 대기 및 휴계실, 의료실, 감시실 등 봉사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있다. 우리들은 빙상장관리운영과 봉사활동을 잘하여 사철 빙상장의 은반우에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이 활짝 꽃펴나게 하라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들의 밝은 웃음을 위해 봉사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하였다.

한여름의 열기를 식혀주며 한껏 얼음판을 지치면 저도 모르게 몸도 마음도 즐거워져 웃음꽃이 피여나는 인민야외빙상장,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물결은 그칠줄 모른다.

글 본사기자 김현강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혁명시인 김혁

(전호에서 계속)

김혁을 할빈에 보낸 중요한 목적은 할빈일대에서 우리의 혁명조직을 늘이는 한편 국제당과의 련계를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김혁이 그때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우리가 주는 임무를 흔연히 받아들이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에게 국제당에 보내는 소개신을 써준 사람은 김광렬(김렬)이였다.

김혁은 떠나면서 내 손을 붙잡고 오래도록 놓아주지 않았다. 우리가 주는 과업이라면 경중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부리나케 해제끼는 사람이였지만 단독임무를 받아가지고 떠나갈 때에는 매번 그렇게 쓸쓸해하였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럿이서 함께 하는것을 좋아하였다. 그가 제일 싫어하는것은 고독이였다.

시인이 고독을 자주 체험해보는것도 문학수업을 위해서는 나쁘지 않을텐데 왜 동무는 그것을 그렇게도 두려워하는가고 언제인가 물었더니 김혁은 지난날 울분을 안고 세상을 떠돌아다닐 때에는 고독도 하나의 좋은 길동무였는데 그런 생활을 끝장낸 다음부터는 싫어진다고 솔직히 고백하였다. 그는 강동에서 몇달동안 외롭게 지내다가 카륜에 와서 친구들과 함께 밤을 밝히며 일하는 재미를 좀 볼만 하니까 또 헤여지게 된다고 하면서 못내 아쉬워하였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어린아이들을 달래듯이 말했다.

《김혁이, 혁명을 하자니까 이런 리별도 있는것이 아니겠소. 할빈에 갔다오면 우리 동만에 나가서 같이 일해보자구.》

김혁은 쓸쓸하게 웃었다.

《성주, 할빈의 일은 걱정하지 마오. 어떤 일이 있어도 조직에서 준 임무를 수행하고 웃으면서 동무들곁으로 돌아오겠소. 앞으로 동만에 나갈 때에는 맨 선참으로 나를 불러주오.》

그것이 김혁과의 마지막리별이였다.

그와 헤여지고보니 내자신도 마음이 허전해졌다.

우리의 선이 처음으로 할빈에 뻗치기 시작한것은 1927년말부터였다. 그 당시 길림제1중학교에서 고학을 하던 몇몇 학생들이 조선민족을 모독하는 강의를 한 반동적인 력사교원과 대판싸움을 하고나서 할빈으로 들고뛴 일이 있었다. 그 학생들가운데는 우리의 지도를 받아오던 류길학우회 성원들도 있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할빈에 가서 조직을 내올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그들은 할빈학원, 할빈고등공업학교, 할빈의학전문학교에 다니는 조선청년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선인학우친목회와 독서회를 조직하였으며 이 조직의 골간들로 1928년 가을에는 반제청년동맹 할빈지부를, 1930년초에는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할빈지부를 결성하였다. 우리는 방학때마다 한영애를 파견하여 할빈의 조직들을 지도하였다.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이 만주를 휩쓸 때 할빈의 청년학생들이 그에 호응하여 큰 규모의 투쟁을 벌릴수 있은것은 바로 이 조직들이 은을 냈기때문이였다.

할빈의 혁명조직들에는 끌끌한 청년들이 많았다. 지금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사업하고있는 서철동무도 그때 할빈의 공청지부에서 일하였다.

김혁을 책임자로 한 조선혁명군 소조가 도착하였을 때 할빈의 공기는 매우 살벌하였다. 학우친목회나 독서회와 같은 합법적조직들까지도 지하에 들어가야 할 형편이였다. 공청을 비롯한 비합법적조직들은 철저히 자기를 위장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김혁은 할빈동무들과 함께 조직을 지켜내고 조직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도를 토의하였다. 그의 제의에 의하여 이 도시의 모든 혁명조직들은 여러개의 조로 분산되여 지하로 더 깊숙이 들어갔다.

김혁은 무장소조원들과 함께 부두로동자들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카륜회의방침을 정력적으로 해설하였다. 그는 능숙한 조직적수완과 담력을 가지고 청년들을 교양하고 조직을 확대하는 한편 기층당조직을 내오기 위한 준비사업과 무기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밀고나갔다. 적들의 삼엄한 감시망을 피해가며 국제당련락소와의 련계도 지어놓았다.

할빈의 일을 추켜세우는데서는 김혁의 공로가 컸다. 그는 혁명의 한개 지역을 담당한 책임자답게 종횡무진으로 활약하다가 할빈도리의 비밀련락소에서 불의에 달려드는 적들과 총격전을 벌리던 끝에 최후를 결심하고 3층에서 뛰여내렸다. 그런데 강철같은 육체가 그의 뜻을 배신하였다. 김혁은 자결에 성공하지 못한채 적들에게 붙잡혀 려순감옥으로 끌려갔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모진 고문과 박해에 시달리다가 옥사하였다고 한다.

김혁은 우리 혁명대오에서 백신한과 함께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삶과 젊음을 바친 첫 세대의 대표자의 한사람이다.

한명의 혁명동지가 천금보다 더 귀중했던 그때 김혁과 같이 훌륭한 재사를 잃은것은 우리 혁명에 있어서 참으로 가슴아픈 손실이였다. 그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며칠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후 나는 할빈에 갔을 때에 김혁의 발자취가 찍혀있는 거리와 선창가를 하염없이 거닐며 그가 생전에 지은 노래를 입속으로 조용히 불러보았다.

차광수나 박훈과 마찬가지로 김혁도 조선의 진로를 찾아 만리타향을 속절없이 떠다니다가 우리와 손을 잡은 사람이였다. 상해 프랑스조계지의 어느 하숙방에서 남의 눈치밥을 얻어먹으며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던 그에게 차광수가 편지로 우리에 대한 소식을 알렸다. 상해에서 아까운 인생을 썩이지 말고 길림으로 오라, 길림에만 오면 네가 찾는 지도자도 있고 리론도 있고 운동도 있다, 길림은 너의 리상향이다! … 이런 편지를 한번도 아니고 세번, 네번 보냈다. 그래서 김혁이 우리한테로 왔다. 우리와 통성을 한 후 길림시내를 며칠 돌아보고는 내 손을 덥석 틀어잡고 《성주, 나는 여기서 닻을 내리겠소. 내 인생은 이제부터요.》라고 말했다.

차광수와 김혁이 막역한 벗으로 된것은 일본동경류학시절부터라고 하였다.

나는 지금도 공청을 창립하던 날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나쇼날》의 노래를 선창하던 모습을 잊을수가 없다.

그날 김혁은 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 나는 한때 상해에서 중국학생들과 함께 시위에 참가한적이 있다, 그들이 반일구호를 부르며 행진해나가는것을 보고 나도 마음이 동하여 시위대오에 뛰여들었다, 시위가 좌절되면 숙소에 돌아와서 이제는 어떻게 할것인가, 래일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고 혼자서 모대기였다, 그 어떤 당파나 조직에도 속하지 않은 무소속청년이니 어디에 모이라고 찾는 사람도 없었고 래일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한다고 지시하거나 의논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

나는 시위를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시위를 하다가 맥을 놓을 때 앞으로 나가라고 소리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가, 시위를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래일은 어떻게 하라고 일러주는 조직이 있고 지도자가 있다면 얼마나 힘이 날가, 내가 총탄에 맞아 쓰러질 때 나를 붙안고 《김혁아!》, 《김혁아!》 하고 부르며 눈물을 뿌려줄 동지들이 있다면 또 얼마나 행복할가 그리고 그것이 조선사람들이고 조선의 조직이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 총구를 향해 달려가면서도 이런 생각이 가슴에 맺혀 내려가지 않았는데 길림에 와서 좋은 동무들을 만나는 행운을 지닌데다가 오늘은 공청에까지 가맹하고보니 얼마나 떳떳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군력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여

오늘 조국은 적대세력들을 전률케 하는 핵강국, 로케트강국으로 우뚝 솟구쳐올랐다.

나라의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길에서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일어나고있는 경이적인 사변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일찌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선군사상과 의지를 그대로 지니시고 군력강화에 힘을 넣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군대를 정치사상강군, 도덕강군으로 건설하시며 군사정치사업을 훈련제일주의에로 철저히 지향시켜 모든 장병들을 주체적인 전략전술과 대담무쌍한 공격방식, 완벽한 실전능력을 지닌 일당백의 용사들로 키우시였다.

직접 현지에서 인민군군인들의 비행전투훈련과 군종타격훈련 등을 지도해주시면서 몸소 비행항로와 좌표들도 찍어주시고 구분대들의 타격순차와 진압밀도도 규정해주시며 그 어떤 자연지리적, 기상기후적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적들을 호되게 답새기는 주체적인 전법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그이이시다.

지난 1월 그이께서는 땅크장갑보병련대 겨울철도하공격전술연습을 지도하시면서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 기상기후적특성에 맞게 인민군대에서는 앞으로 오늘과 같은 실전화된 강도높은 훈련들을 계절별로, 주야일기에 관계없이 더 많이 조직진행하여 전법을 부단히 연구완성하고 풍부한 전투경험을 쌓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뿐만아니라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강하 및 대상물타격경기대회, 조선인민군 땅크병경기대회를 비롯하여 여러 경기대회들을 보아주시며 모든 군인들이 일당백의 펄펄 나는 싸움군들로 준비되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그이의 령도에 의하여 인민군대의 군사기술적위력은 그 어떤 강적도 단매에 때려부실수 있는 최강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였으며 조선인민군은 무적필승의 강군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완벽하게 갖추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전쟁위협이 더욱 로골화되는 조건에서 조선반도의 지정학적특성과 조선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 세계정치정세의 변화발전추세를 예리하게 분석한데 기초하시여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로선을 제시하시고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튼튼히 다져주시였다.

그 나날 핵무기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일군들을 만나시여 주체적립장에서 모든것을 새롭게 설계착상하고 연구완성하도록 하나하나 이끌어주시였으며 위험천만한 시험발사장에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나가시여 개발자들과 함께 의논도 해주신 그이이시다.

때로는 국방과학자들이 실패에 위축되고 주눅이 들세라 더 큰 사랑과 믿음도 안겨주시고 진할줄 모르는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였으며 시험이 성공하였을 때에는 그들모두를 애국자들로 내세워주시였다.

지난 2월 새형의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전략무기체계의 총조립을 구체적으로 지도하시며 발사준비로부터 발사계획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알아보시고 신심을 안고 발사진지로 진출하도록 개발자들을 고무격려해주시였으며 시험이 성공하였을 때에는 모든것이 100%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에 의하여 개발된 주체탄, 주체무기라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진정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헌신적인 로고에 의하여 조국의 국방력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시험발사에서 성공한 때로부터 두달도 못되는 사이에 부대실전배비를 앞둔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 신형반항공요격유도무기체계의 시험사격, 정밀조종유도체계를 도입한 탄도로케트시험발사, 새로 개발한 신형지상대해상순항로케트시험발사에서의 성공은 물론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단번성공에 이어 2차 시험발사에서의 대성공.

하기에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위원장 미하엘 코트는《**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춘 불패의 혁명강군으로, 진정한 인민의 군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첫 수소탄시험과 핵탄두폭발시험의 성공으로 조선은 핵강국의 전렬에 확고히 들어섰다. 조선의 비약적인 발전에 미국과 그 주구들은 어쩔바를 몰라하고있다.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눈부신 성과들을 이룩하여 세인을 경탄시킬것이다.》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김솔미

녀성들이 새 조국건설에서 한몫하도록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는 해방후 녀성들을 불러일으켜 그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새 조국건설사상과 로선을 받들어나가는데서 한몫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김정숙녀사께서는 해방후 조선인민이 처음으로 진행하는 대자연개조사업인 보통강개수공사에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이 큰 몫을 맡아나서도록 적극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통강개수공사의 첫삽을 뜨신 날인 주체35(1946)년 5월 21일 저녁무렵이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평양시 녀맹일군들을 부르시여 시안의 녀성들을 공사에 적극 떨쳐나서게 할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해주시면서 우리 녀성들이 장군님의 의도를 똑똑히 알고 이 공사에 모두 떨쳐나선다면 토성랑에서 다시는 원한많은 통곡소리, 한숨소리가 들리지 않을것이며 이 강은 행복의 강으로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녀사께서는 녀맹일군들을 평양시 여러곳에 파견하시여 각계층 녀성들이 보통강개수공사를 힘있게 지원하도록 하시였으며 몸소 공사장에 나가시여 실천적모범으로 건국사업에 떨쳐나선 수도시민들과 녀성들을 로력적위훈에로 고무하여주시였다.

녀성들의 보통강개수공사지원사업은 날이 갈수록 그 규모가 늘어나 제집 안방에서 나올 생각을 못하던 가정부인들도 하나, 둘 이 사업에 떨쳐나섰다.

그리하여 공사장은 애국의 열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녀사께서는 공사가 진행되는 나날 자주 현장에 나가시였다.

언제인가 땅밑에서 불시에 샘줄기가 터져 작업이 중단되였을 때에도 녀사께서는 선참으로 무릎까지 빠지는 감탕판에 들어서시여 부지런히 삽질을 하시였다.

그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이 저저마다 감탕속에 뛰여들었다.

녀사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녀성들은 일제가 15년이 걸려야 한다고 하던 보통강개수공사를 예정기일보다 15일이나 앞당겨 단 55일동안에 완공하는데 적극 기여할수 있었다.

녀사께서는 이뿐아니라 일제의 군사적강점하에 천대와 무권리속에서, 가정의 좁은 울타리속에서 살아온 녀성들이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과학탐구의 길에 들어설수 있도록 녀성기술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녀자기술학교(당시)를 내오는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어느날 녀자기술학교설립준비위원회 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준비사업과정에 나타난 일련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녀사께서는 학교를 내오는 목적에 대하여 다시금 알려주시면서 지금 일부 사람들이 녀자들에게 기술교육을 주어 사회에 내보내면 녀자들이 녀성다운데가 없어진다고 한다는데 그것은 녀성들을 량순하고 나약한 가정주부로 만들려고 하는 매우 유해로운 주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녀성들을 자기들의 무제한한 착취와 롱락의 희생물로 만들려는 착취계급의 주장 그대로라고 말씀하시였다.

녀사께서는 기술을 배우는것이 하나의 사회적 기풍으로 되고있는 지금 이것을 외면하는것은 심히 뒤떨어진 생각이라고 하시면서 녀성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그릇된 태도와 관점을 바로잡아줄데 대해서도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리고 학과를 설정하는 문제, 수업년한문제, 교육강령과 그 방법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구체적이고도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녀사의 손길아래 주체36(1947)년 2월 1일 마침내 첫 녀자기술학교가 문을 열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녀사께서는 녀성들을 사회에 진출시키고 그들이 일할수 있는 사회적조건을 잘 지어주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온 나라 방방곡곡 전국각지에 탁아소와 유치원을 내오고 잘 꾸리는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참으로 녀사의 손길아래 조선녀성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건국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수 있었다.

하기에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 인터네트홈페지는 김정숙녀사는 조선해방과 새 조선건설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위대한 혁명가, 열렬한 애국자이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본사기자 엄향심

수지일용품생산에 박차를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있는 본보기공장이다. 얼마전 우리가 이 공장을 찾았을 때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만리마선구자대회를 뜻깊게 맞이할 열의속에 보다 높은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고있었다.

우리와 만난 공장지배인 강남익은 말하였다.

《얼마전 공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영예군인들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야 한다는 당(조선로동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병사시절처럼 조국과 인민을 위한 투쟁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고있다는것을 다시금 잘 알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우리들과 함께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이의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고 기세충천해진 모든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병사시절의 그 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며 생산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하고있다고 하였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담하고 정갈하게 꾸려진 공장구내를 지나 먼저 통합조종실에 들리였다. 공장에 통합조종체계가 높은 수준에서 구축됨으로써 공장에서는 생산현장실태에 대한 실시간적이며 직관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일군들이 과학적인 결심을 채택하는것은 물론 제품의 질을 제고하고 경영활동에서 최대한의 실리를 얻고있었다.

생산현장을 돌아보니 로동자들의 열의가 정말 대단하였다. 그 어느 작업반이나 할것없이 혁신을 일으키고있었지만 1작업반 로동자들의 기세가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그들은 지난 몇달동안에 수십만개의 버섯균주병을 생산한데 이어 각종 수지용기와 수지관생산계획을 170％로 넘쳐 수행하고있었다. 식료품포장재생산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있는 7작업반과 2작업반의 로동자들도 비닐박막생산과 인쇄작업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다그쳐나가고있었다.

기사장 김득수는 공장의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대단히 높다고, 식료품포장재만도 많은 식료공장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있다고 말하였다.

쉬임없이 돌아가는 설비들을 가리키며 그는 《그러자니 설비를 만부하로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책임적인 설비관리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습니다. 하기에 우리 공장의 로동자들은 설비의 동음을 자기 심장의 박동소리처럼 여기며 군사복무의 나날 무기를 비롯한 전투기술기재들을 다루듯이 설비들을 정말 소중히 애호관리하고있습니다.》라고 하는것이였다.

그의 말처럼 공장의 모든 설비들은 새 설비와 같았다. 물론 그중에는 수십년을 사용한것도 있지만 이곳 기술자, 로동자들은 그 설비들도 현대적인 설비 못지 않게 개조하여 생산에 적극 리용하고있었다.

병사시절의 군인정신에 첨단과학기술을 더하면 세상에 못해낼것이 없다는것이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지닌 배심이다.

지금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병사시절의 그 정신, 그 본때로 설비들을 현대화하고 원료, 자재를 국산화하며 제품의 질을 보다 개선하기 위한 기술혁신과 새 제품개발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글 본사기자 최기철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더 많은 약수를

강서약수공장에서 인민들에게 질좋고 맛좋은 약수를 더 많이 보내주기 위한 생산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다.

지배인 림선화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공장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이 뜨겁게 어려있는 공장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공장의 터전도 잡아주시고 약수의 이름도 지어주시였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영 잃을번 했던 약수샘줄기를 다시 찾을수 있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습니다. 얼마전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의 샘줄기가 영원토록 흐르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공장에서는 약수의 생산량을 늘이고 질을 보장하는 비결을 과학기술에서 찾고 이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공장의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은 해당 부문의 연구사들과 지혜와 힘을 합쳐 공장의 전반생산공정에 대한 실시간감시측정과 자동조종을 진행할수 있게 하였으며 탄산가스분리기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하여 생산에 도입하였다.

약수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유리병약수생산1작업반의 로동자들이 혁신의 앞장에서 달리고있다.

그들은 국가과학원의 연구사들과 협동하여 100% 국산화된 통약수생산공정을 확립하였다. 작업반의 한송심, 림금향을 비롯한 기대공들은 다기대운동을 발기하고 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유리병에 담기는 약수를 주의깊게 살피며 날랜 동작으로 기대들을 오가는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약수생산자의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려있다.

수지병약수생산작업반의 로동자들도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수지병입상기의 물개장치와 이송콘베아 등을 완성하여 약수생산을 훨씬 늘일수 있게 하였다.

뿐만아니라 실험실의 기술준비원, 공정검사원들은 제품검사와 생산공정들에 대한 검사를 책임적으로 하여 생산된 제품의 위생안전성과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게 하고있다.

기대공 한봄이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인민사랑이 깃들어있고 사람들의 건강에 아주 좋은 강서약수를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가닿게 함으로써 사랑의 샘줄기가 영원히 흐르게 하겠다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김현강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강성조선의 유능한 인재들로 키워나간다

리광명: 교육위원회 국장
정광수: **김일성**종합대학 강좌장 박사 부교수
방승선: 평양제1중학교 교장
리영렬: 김성주소학교 교장
강경수: 본사기자

기자: 우리는 과학교육의 해인 올해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 40돐을 기념하게 됩니다.

리광명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66(1977)년 9월 5일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그리고 오랜 기간 나라의 교육사업을 령도하는 과정에 이룩하신 고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에 토대하여 이 교육테제를 내놓으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교육테제에서 사회주의교육의 본질과 목적,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와 원칙, 교육의 내용과 방법, 사회주의교육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근본방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습니다.

리광명: 옳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바와 같이 사회주의교육은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키우는 사업입니다. 사람의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은 타고난것이 아니며 그것은 교육을 통하여서만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며 세계를 인식하고 변혁할수 있는 창조적능력을 가지게 되는것입니다. 그러자면 새 세대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며 그에 기초하여 깊은 과학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가지도록 교육교양하여야 합니다.

정광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육성에서 정치사상교양을 강화하는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되여야 인간의 참된 풍모를 갖출수 있으며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양할수 있기때문입니다.

우리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학생들을 지식인으로 키우기전에 혁명가로, 애국자로 키워야 한다는 관점에서 언제나 정치사상교양을 앞세워나가고있습니다. 중요하게는 학생들에게 주체사상교양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들과 우리 당(조선로동당)의 위대성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진행할뿐아니라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틀어쥐고나가고있습니다.

리영렬: 그것은 고등교육에서도 중요한것이지만 학교전교

정광수

육교양과 새 세대들의 세계관이 싹트기 시작하는 소년단시절에 보다 중요한 사업으로 나섭니다. 하기에 우리 학교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어린시절을 따라배우기 위한 교양사업과 함께 절세위인들의 크나큰 사랑과 은덕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학교에 깃든 불멸의 령도업적과 결부하여 진행하고있으며 어린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교양사업을 참신하게 해나가고있습니다.

기자: 학생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은 무료의무교육제도와 함께 훌륭한 교육조건과 환경을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과 충정의 마음을 간직하게 할뿐아니라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고 그 부강번영을 위해 자기를 다 바치려는 마음을 지니게 하며 그것은 그대로 학생들이 과학지식을 더 열심히 배우도록 적극 추동하고있습니다.

방승선: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것으로 하여 지난 기간 우리 평양제1중학교에서는 콤퓨터와 외국어는 물론 수학, 물리학, 화학 등 기초과학과목들에서 뛰여난 수재들이 수많이 자라났으며 그들은 20대, 30대에 박사학위를 받고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수행하고있습니다.

리영렬: 그속에는 우리 김성주소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는데서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이 은을 낸다고 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으로 사물현상의 일반적개념과 본질, 그 변화발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주는 한편 수학, 자연 등 기초과학분야의 일반지식을 가르치는데 기본을 두고 교

방승선

육하고있습니다.

방승선: 그와 함께 학생들에게 생산과 기술의 기초원리와 전기, 기계 등에 대한 지식을 비롯한 기초기술지식을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반기초지식과 기초기술교육을 배합함으로써 학생들이 하나를 배워도 실지 써먹을수 있는 산지식을 소유하도록 하고있습니다. 한편 뛰여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개별교육(조기교육, 속성교육 등)을 발전시켜 그들의 소질과 재능이 빨리 원만히 자라나도록 하고있습니다.

정광수: 인간의 창조적능력은 고등교육단계에서 완성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 학생들에게는 전문지식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자연과학분야의 전문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자연과학의 기초원리와 리론, 이 분야에서 이룩된 최신성과들을 깊이 체득시키며 실천에서 나서는 새로운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필요한 지식을 주는데 기본을 두고 교육하고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의 내용과 질을 현실발전의 요구와 새로운 과학기술성과에 기초하여 부단히 개선해나가고있습니다.

사회과학분야의 전문교육에서도 학생들에게 사회발전의 객관적합법칙성과 계급투쟁에 관한 리론, 혁명의 전략전술에 관한 리론 등을 깊이 체득시키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이룩된 귀중한 성과와 경험들을 배워주고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방법과 교수방법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부단히 개선해나가고있습니다.

방승선: 지난 기간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속에서 정치사상교양과 과학기술교육에만 힘을 넣고 체력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은 소홀히 하는 현상이 부분적이지만 나타나고있었습니다. 그런데로부터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체육교육은 체력을 증진시킬뿐아니라 그들의 사상의지를 단련하며 문화수준을 높이는데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것을 옳게 인식시키기 위한 교양을 강화하는 한편 그들의 성별과 나이, 체질적요구에 맞게 체육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리영렬: 체육교육에서는 과외체육활동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집단달리기, 태권도, 체육대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체육활동을 널리 진행하니 학생들속에서 체육에 대한 열의와 관심이 높아지게 되였으며 그 과정에 많은 학생들이 한가지이상의 체육기술을 소유하게 되였습니다. 총체적으로 놓고볼 때 지덕체를

리영렬

겸비한 훌륭한 학생들로 자라날수 있었습니다.

기자: 그것은 비단 어느 한두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주의교육테제의 빛발아래 자라나는 온 나라 학생들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럴수록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육성의 길, 사회주의교육의 진로를 가장 명확히 밝혀주는 주체교육의 대강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그것을 빛나게 구현해가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금할수 없습니다.

전체: 그렇습니다.

정광수: 사회주의교육의 대강을 마련해주시고 그것을 구

학생들의 마음에 비낀 조국의 래일

얼마전 평양시에 있는 보통강구역 보통강초급중학교를 찾았던 우리는 한 소개판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거기에는 며칠전 학교적으로 진행된 다과목학과경연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학생들과 그들의 등수가 게시되여있었다. 흥미를 가지고 소개판을 보던 우리는 마침 휴식시간이 되여 복도로 나오는 학생들을 만났다.

《저는 이번 경연에서 전과목 5점을 받아 2학년적으로 1등을 하였습니다.》, 《저는 한 과목이 4점으로 평가되여 비록 2등을 하였지만 다음번에는 꼭 1등을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기쁨과 신심에 넘친 이야기를 듣고있을 때 학교의 일군인 김정화가 우리에게로 다가왔다.

《우리 학교 학생들모두가 공부를 잘합니다. 해마다 많은 학생들이 평양제1중학교를 비롯한 여러 상급학교들에 추천을 받고있습니다.》

우리는 학교학생들에 대한 자랑을 안고있는 일군의 이야기를 들으며 교실들과 실험실들로 걸음을 옮기였다. 교육설비들이 그쯘히 갖추어진 교실들은 하나와 같이 깨끗하고 교육의 정보화수준도 높았다. 바로 이러한 교육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학생들을 최우등생, 우등생으로 되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우리의 뇌리에 갈마들었다.

배운 지식을 다져간다.

정열적으로, 진취적으로 공부에 전념하고있는 2학년 4반을 비롯하여 몇개 학급의 수업과정을 돌아본 우리는 학생들의 실험이 한창인 자연과학실(2)에 들리였다.

그곳에서는 김영심교원의 지도밑에 1학년 2반 학생들이 물질의 밀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우리는 여러 실험기구들을 가지고 흥미진진하게 실험을 하는 한 학생에게로 다가갔다. 이름이 한건인 그 학생은 메스실린더와 천평 등으로 물과 모래의 체적과 질량을 구하고 그에 기초하여 밀도를 계산하는 실험과정을 보여주고나서 제일 흥미있는 과목의 하나가 자연과학이라고, 자연의 모든 현상들은 너무나도 많은 수수께끼를 안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부를 더 잘하여 학습장마다에 5점꽃만을 피우겠다고 하였다.

이어 우리는 정보기술학습실(1)로 향하였다.

수업후 탁구소조에서

학습실에서는 3학년 9반 학생들이 콤퓨터에 열중하고있었다. 그들의 콤퓨터수준은 높은 수준이였다.

고영문교원은 지금 학생들이 다매체편집물을 작성하고있다고 하면서 우리를 한 학생에게로 이끌었다. 지난 시기 학교적으로 진행된 프로그람경연들에서 재능을 보여준 김홍성학생이였다. 알고보니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의 대표로 참가한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가슴에 안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회에서 우리 소년단원들의 첫째가는 임무는 공부를 잘하는것이라고 하시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 세계적인 과학자, 발명가가 되기 위한 지식의 탑을 높이높이 쌓아가겠습니다.》

그의 결심이 실현되리라 믿으면서 우리는 탁구소조실이며 미술, 경음악소조실 등 학교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운동장에서 축구와 롱구, 배구훈련으로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해나가는 학생들과 제43차 정일봉상 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기대회 탁구(단체전)경기에서 1등을 쟁취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훈련에 열중하고있는 탁구소조원들의 모습도 볼만 하였다.

10대 초엽, 아직은 나이도 어리고 장난도 세찬 학생들이지만 강성조선의 기둥감들로 준비해갈 마음은 하나와 같았다.

사회주의교육테제의 따사로운 빛발아래 자기의 재능과 희망을 마음껏 꽃피우는 학생소년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사회주의강국의 래일을 그려보았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리은별

현하여 주체교육발전과 조국의 부강번영,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은 우리 교육의 강화발전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입니다.

리광명: 오늘 우리 조국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교육발전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고있습니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된데 이어 온 나라가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는 구호밑에 우리 나라를 21세기 사회주의교육강국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습니다.

우리 교육일군들은 불멸의 대강인 사회주의교육테제를 높이 받들고 앞으로도 학생들을 강성조선의 유능한 인재들로 키우는데서 자기들의 책임과 임무를 다해나갈것입니다.

기자: 좋은 말씀을 해주어 감사합니다.

개발창조자들

자체의 힘과 기술로 첨단산업의 세계를 개척해가는 국가과학원 정보과학기술연구소 과학자, 기술자들의 연구성과가 날로 커가고있다. 최근시기에만도 그들은 분산형조종체계를 개발하고 국산화하였으며 고성능병렬콤퓨터개발과 자동항법계산체계를 비롯하여 첨단수준의 과학연구성과들을 내놓아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20대, 30대 청년과학자들이 대부분을 이루고있는 이곳 연구집단에서 이런 성과를 이룩할수 있은것은 그들의 가슴마다에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강한 민족적자존심과 그로부터 분출되는 배짱이 있었기때문이다.

이에 대해 주체104(2015)년 최우수과학자, 기술자로 선정된 이곳 연구소소장 최성은 《현시기 만리마속도로 내달리는 공화국의 전진을 가로막아보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은 그 어느때보다 우심해지고있다. 특히 정보기술분야에 대한 봉쇄가 악랄해지는 조건에서 이 부문을 맡고있는 우리들은 모든것을 자체의 과학기술력량과 그 위력으로 개발창조하기로 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하기에 일군들부터가 세계를 보는 높은 안목, 경쟁심을 지니고 첨단돌파전의 1번수가 되여 탐구의 초행길을 헤쳐왔다고 하였다. 그는 분산형조종체계를 개발하고 국산화하는데서 주되는 역할을 한 실력있는 일군이였다.

실장 조석철은 말하였다.

《사실 생산공정의 CNC화, 무인화를 실현하고 변화되는 현장조건들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수 있는 세계적인 이 조종체계를 개발할 목표를 세우고 달라붙었을 때 제기된 문제는 수없이 많았다. 하지만 우리는 맥을 놓고 앉아있을수가 없었다. 우리가 잘살고 강대해지는것을 바라지 않는 적들의 책동을 짓부셔버리고 조국땅우에 사회주의경제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우자면 반드시 우리들이 이 미지의 과학의 세계를 우리 식으로 개척해야 한다는 생각이 가슴을 파고들었기때문이다.》

그들은 이런 일념으로 첨단돌파전에 슬기와 열정을 다 바쳐갔다. 그들은 과학자들과 연구집단사이의 협동연구를 강화하고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였다. 사실 갱신주기가 계속 빨라지고있는 정보기술분야에서의 첨단연구성과는 한두명 인재들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수 없었다. 설사 한두명의 인재들이 성공한다고 해도 기일이 오래 걸리기때문에 초기에 내세웠던 목표는 이미 낡은 목표로 되는것이였다.

고심어린 연구과정에 실정에 맞으면서도 원가가 적게 들고 그 안정성과 믿음성이 보장되는 조종체계가 확립되고 그에 필요한 조작체계와 전용프로그람도구들이 개발되였으며 여러 종류의 부분품들이 련이어 연구제작되였다. 그러는 속에 얼마후에는 완전히 국산화된 분산형조종체계 《미래 102》(1.0)가 완성되였다. 조종체계는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조선인민군 제122호양묘장을 비롯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관련되는 수많은 단위들에서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는데 적극적으로 리용되였다.

지난해 조선인민군 제122호양묘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곳 연구집단이 구축한 양묘장통합생산체계를 보시며 이 체계를 개발한 연구사들이 실력이 있다고, 그들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양묘장통합생산체계를 연구개발한 개척자들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이곳 과학자, 기술자들이 연구완성한 고성능병렬콤퓨터와 자동항법계산체계 역시 세계선진수준에 당당히 올라선것으로 하여 나라의 경제를 빨리 발전시키고 교통운수를 현대화, 과학화하는데서 큰 역할을 하고있다.

자동항법계산체계를 연구완성한 부소장 최길영(그는 지난해 국가 최우수과학자, 기술자로 선정됨)은 말하였다.

《원래 조선사람은 총명하고 지혜로운 민족이다. 여기에 가장 위대하고 젊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시고있고 그이께서 바라시는것이라면 무조건 해내는 인민이 있다. 이런 민족의 힘을 폭발한다면 점령 못할 요새란 없다. 앞으로도 우리는 민족적자존심과 배짱을 지니고 최첨단과학의 요새들을 점령해나갈것이다.》

글 본사기자 최기철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현실에 나가 연구사업을 심화시키고있다.

새로운 계산프로그람을 개발하고있다.

세월의 이끼속에 묻어버릴수 없다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대학 민족고전학강좌의 교원, 연구사들을 두고 사람들은 몸은 오늘에 있지만 마음은 아득한 옛적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오랜 세월 흘러온 민족의 력사를 밝혀내기 위해 심혼을 다 바쳐가고있는 그들에 대한 류다른 존경의 표시이기도 하다. 실지 이곳 강좌의 로교수들과 교원, 연구사들은 후대교육사업을 하는 속에서도 지난 시기 《각사수교》, 《고려고도징》, 《대동지지》를 비롯한 우리 나라에 존재하였던 옛 국가들의 법, 력사, 지리관계문헌 등을 번역하였고 지난해 11월까지 민족고전 《증보문헌비고》에 대한 번역을 완성하였다. 이 책은 1770년에 출판된 《동국문헌비고》를 봉건정부의 수십명의 문인, 학자들이 백수십년간에 걸쳐 여러차례 수정보충하여 완성한것으로서 조선의 고대시기로부터 근대시기에 이르기까지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각 부문의 자료들을 집대성한 백과전서적인 성격을 띠는 책이다.

그들이 이 책에 대한 번역을 시작한것은 주체89(2000)년 5월부터였다고 한다.

그때를 회상하며 강좌장 리동윤은 이렇게 말하였다.

《정말 쉽지 않게 내린 결심이였고 쉽지 않게 걸어온 길이였다. 그러나 누구든 꼭 걸어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민족의 찬란한 력사와 문화를 세월의 이끼속에 영영 묻어버릴수 없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이 길을 택하였다.》

시작이 절반이라고 하지만 번역사업은 시작부터 애로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옛 사람들이 쓴 책은 뜻이 복잡하고 문법이 규범화되여있지 않는 한문으로 된것이여서 많은 한자와 문법의 소유를 필요로 했고 글자 하나, 단어 하나의 뜻을 해석하는데 하루가 모자라는 때도 있었다. 그리고 전공이 아닌 각 부문의 자료들을 번역하자면 해당 부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하였다.

강좌장 리동윤, 연구사 한명길은 천문, 력학, 음악 등의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 대학전자도서관에서 자료들을 연구하였고 해당 학부들을 찾

민족고전 《증보문헌비고》원본의 일부와 번역편찬된 《증보문헌비고》

아가 허심하게 배우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교원, 연구사들인 리명철, 리성근, 신철수는 각이한 시대에 우리 나라에 존재했던 옛 국가들의 군사제도, 외교관계, 과거제도 등의 자료들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과학원과 박물관들을 비롯한 해당 단위들을 발이 닳도록 찾아다니였다.

그들만이 아닌 새 세대 젊은 연구사들인 김창길, 김금혁도 고전문헌의 편찬과 출판과정에 잘못된 어느 한 부분의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봉건왕조실록》을 비롯한 방대한 문헌들을 파고드느라 지새운 밤 또한 얼마인지 모른다.

그들속에는 김희옥교원도 있다. 자식을 가진 녀성으로서 가정도 돌보고 학생들에 대한 강의와 론문지도 등으로 시간이 바쁜 그였지만 번역하는 한권, 한권의 책에 자기의 량심을 묻어갔다.

이렇게 번역한 한문장의 번역문을 놓고서는 그 정확성과 과학성을 위해 모두가 모여 열기띤 론쟁을 진행하기도 하고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기도 하며 미지의 세계를 헤쳐나갔다.

마침내 그들의 헌신과 노력에 의해 민족의 력사를 빛내일수 있는 또 하나의 재부가 마련되였다.

원전을 쌓으면 그 높이가 사람의 키만큼이나 되고 번역본은 6만여페지나 되는 이 책을 번역하는데 15년이상이나 걸렸다니 그들이 걸어온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였음을 잘 알수 있다.

민족고전을 번역하는 과정에 그들은 민족문화유산들을 더 많이 과학적으로 발굴, 정리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교육사업의 과학화, 실용화, 종합화를 실현하였으며 이 부문의 많은 전문가들도 키워냈다.

오늘 그들에게 온 나라가 첨단을 돌파하는 시대에 력사를 거슬러 어디까지 가겠는가고 즐거운 롱을 거는 사람들도 있다.

그럴 때면 민족고전학강좌의 교원 정충섭은 먼 후날 후대들이 돌아보는 민족의 어제와 오늘속에 우리 모두의 애국의 마음이 깃든다면 우리는 어제와 오늘뿐아니라 래일에도 산다고 말할수 있다, 그래서 어렵지만 변함없이 이 길을 가고있다고 말한다고 한다.

새로운 민족고전에 대한 번역편찬사업을 토론하는 교원들

글 본사기자 김현강
사진 본사기자 최유성

경제개발구에서의 기업창설승인과 등록

조국의 경제개발구에 기업을 창설하려는 외국투자기업들은 기업창설승인과 등록사업을 법적인 요구와 절차, 방법에 맞게 진행하여야 한다.

공화국은 외국투자기업의 창설을 위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있다.

우선 투자대상에 대한 장려와 금지 및 제한조건을 바로 규정하고있다.

조국에서는 경제개발구에 투자하려는 외국투자기업이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인 기술과 최신설비를 장비하고있거나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한 제품들을 생산할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투자를 장려하고있다.

경제개발구에 외국투자기업을 창설할수 있는 부문은 전자 및 자동화공업, 기계제작공업, 동력공업부문과 농업부문, 과학연구부문, 식료가공공업, 피복가공공업, 일용품공업, 건재공업, 제약공업, 화학공업, 건설, 운수 및 봉사부문과 이밖에 필요한 부문이다.

경제개발구에 외국투자기업을 창설할수 없는 부문은 출판, 보도, 방송부문과 교육, 문화, 보건부문, 체신부문과 국가가 외국투자기업의 창설을 금지한 부문이다.

우리 나라의 경제개발구에서는 공화국의 주권과 리익을 침해하는 경우, 나라의 안전에 저해를 주는 경우, 나라의 법과 규범에 위반되는 경우, 나라의 민족경제발전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 기업창설을 금지시키고있다.

또한 외국투자가들이 재산형태별로 나라의 리익에 맞게 투자하도록 요구조건을 설정하고있다.

외국투자가는 화폐재산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전환성화폐로 투자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가가 현물형태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조건과 권리담보, 가격계산방법, 투자기간 등과 관련된 일정한 조건들을 제기하여야 한다.

투자하는 업종과 현물재산은 공화국에 절실히 필요한것이여야 하며 제품의 질을 높일수 있는것이여야 한다.

개발구기업은 관리기관에서 비준받은 기업규약에 따라 경영관리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경제개발구에 자기의 기업을 창설하려는 외국투자기업은 아래와 같은 절차와 방법에 따라 기업창설승인신청과 등록사업을 진행할수 있다.

먼저 기업창설승인신청서와 함께 기타 첨부문건을 관리기관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기업창설승인신청문건에는 투자가의 이름과 주소, 창설하려는 기업의 명칭, 기업책임자의 이름, 총투자액 및 등록자본, 기업의 업종, 투자방식과 투자기간, 관리기구 및 종업원수, 조업예정날자 등의 내용이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부지선택과 부지면적, 종업원채용, 기본건설, 설비의 기술수준, 제품판매방향 및 지역, 판매경로 및 방식, 외화자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로임수준, 보험, 로동보호, 환경오염정도, 요구되는 자금과 에네르기, 원자재 및 그 해결방도, 투자대상의 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투자가는 기업창설승인신청서와 함께 기업의 규약, 경제기술타산서, 자본신용확인서, 투자가능성보고서, 계약서사본과 같은 필요한 문건들도 준비하여야 한다.

경제개발구기업창설승인을 받은 기업은 관리기관에 창설등록과 기업등록을 하여야 하며 세무등록은 해당 세무소에, 세관등록은 해당 세관에 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창설승인을 받은 다음 기업운영을 위한 공인등록사업과 함께 세무등록, 세관등록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고 기업운영을 하여야 한다.

공인조각 및 등록신청문건에는 기업명, 주소, 신청리유 같은 내용을 밝히고 공인도안과 도안설명을 첨부하도록 한다.

세무등록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과 주소,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업종, 존속기간, 종업원수(외국인수), 기업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만일 기업의 세무등록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리유를 밝혀 해당 세무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며 세무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세관등록신청서에는 기업 또는 상주대표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존속기간, 업종, 거래은행, 돈자리번호, 기업창설승인서 또는 설립허가증, 기업등록증의 사본, 은행의 재정담보서와 같은 내용이 밝혀져야 한다.

인민경제대학 교원 량경호

정신력이 안아온 우승

림은심

흔히 결승경기를 앞두고 많은 체육선수들이 정신적인 긴장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드문하다고 한다.

주체106(2017)년 4월 뚜르크메니스딴에서 진행된 아시아력기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림은심선수도 마찬가지였다. 국제경기경험이 없어서도 아니였고 경기를 치르어야 할 선수들이 두려워서도 아니였다. 한것은 지금까지 청소년 및 청년급경기들에만 참가한 그가 아시아력기선수권대회는 처음이였던것이다. 더우기 조국의 존엄과 영예가 자기의 두어깨에 걸머져있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다.

은심이의 이러한 심리를 들여다본 김춘희감독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은심이, 신심을 가지라. 훈련할 때처럼 하면 돼.》

은연중 은심이의 눈앞에는 지나간 시절에 있었던 생활의 토막들이 선명한 화면처럼 펼쳐졌다.

로동자가정에서 태여난 은심은 어려서부터 음악에 남다른 소질이 있었다. 유치원시절에는 가야금을 배웠고 소학교에 다니면서부터는 어은금을 배운 그였다. 그러한 그가 력기에로 방향전환을 한것은 소학교 3학년때부터였다. 청춘거리 청소년체육학교에서 력기를 배우고있던 언니(림정심)를 따라 여러번 학교의 훈련장으로 다니던 과정에 생긴 력기에 대한 호기심이 점차 그에게 력기를 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게 하였던것이다.

이렇게 력기를 배우기 시작한 그는 기초기술동작을 정확히 배우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였다. 나어린 소녀에게 있어서 기술을 련마하기 위한 훈련의 나날은 순탄치 않았다. 그러나 승벽심이 남달리 강한 그는 교원이 주는 훈련과제를 무조건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학생들보다 더 이악하게 훈련에 열중하였다.

그후 기관차체육단에서의 선수생활과정에 그의 육체기술능력은 점차 높아지게 되였다. 그것은 곧 국내, 국제경기들에서의 우승으로 나타났으며 그의 경기기록은 전문가들의 주목을 끌었다.

그러던중 그는 주체104(2015)년에 있은 세계청년력기선수권대회에서 3등을 한적이 있었다. 그 원인을 자기의 육체기술적준비가 미약한데서 찾은 그는 감독이 주는 훈련계획외에 자체로 훈련과제를 더 정하고 애써 노력하였다. 뿐만아니라 보다 높은 기술을 소유하기 위해 세계력기발전의 추세에 대한 연구와 이름난 선수들의 경기과정에 대한 록화물시청으로 밤을 새우기도 하였다.

그가 아시아력기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맹훈련을 하던 어느날이였다. 그날도 여느때보다 높아진 훈련계획을 수행하던 그는 극한점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 주저앉고말았다.

바로 그때 김춘희감독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렸다.

《조국을 빛내이는 우승의 단상에 오를 자격은 저절로 차례지지 않는다. 그 자격이라는게 뭐겠어. 물론 육체기술적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기어이 떨치려는 강한 정신력의 강자가 되는것이 아니겠어.》

그때에야 그는 자기에게서 무엇이 부족했으며 왜 기록이 떨어졌는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였다. 그리고 감독의 말을 언제나 잊지 않고 훈련할 때나 경기장에 나설 때나 다시 외워보며 힘과 용기를 내군 하였다.

그는 이렇게 훈련과정에 더해지는 육체적부담을 강한 정신력과 의지로 이겨내면서 극한점들을 하나하나 돌파해나갔다.

후날 그는 우리에게 력기경기는 힘의 대결인 동시에 정신력의 대결이라고 말하고싶다고 하였다.

…

드디여 림은심선수의 차례가 왔다. 여유작작한 자세로 구간봉을 힘있게 잡은 그는 빠른 추기와 재치있는 련결동작 등 자기의 특기를 살리면서 시작부터 마감까지 경기를 책임적으로 운영해나갔다.

하여 그는 끌어올리기에서 106kg을, 추켜올리기에서 131kg을 들어올려 각각 1위를 하였다. 그리하여 종합 237kg의 성적으로 3개의 금메달을 쟁취하고 1등의 영예를 지니였다.

림은심선수의 경기가 끝나자 력기계의 전문가들과 다른 나라 감독들은 이구동성으로 그가 지난해보다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기록이 이렇게 올라설줄 몰랐다, 대단하다,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성공할것이다고 자기들의 심정을 그대로 터치였다.

자기 몸무게급에서 세계력기의 패권을 쥐는것이 현재 그의 목표이다. 그 실현을 위해 그는 지금 훈련에 열중하고있다.

세계패권을 쥘 야심안고

글 본사기자 진룡진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애국명장 강감찬

강감찬은 조선민족의 반침략투쟁사에 커다란 공적을 남긴 애국명장의 한 사람이다.

948년 오늘의 경기도 시흥에서 삼한벽상공신 강궁진의 아들로 태여난 강감찬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좋아하였으며 매우 총명하였다.

본은 금주(금천)이며 처음이름은 강은천이였다.

매우 체소하고 청백하고 검소한 성품으로 하여 남의 눈에 잘 띄우지 않았으나 탐구심이 강하였고 결단성이 있었으며 매사에 심중하고 지략이 뛰여났다.

983년에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벼슬은 례부시랑, 한림학사를 거쳐 고려봉건국가의 최고관직인 문하시중에 이르렀다.

강감찬이 명장으로서 이름을 날리게 된것은 거란의 2차침입(1010년 11월)때부터였다.

당시 고려군의 총지휘관이였던 강조의 경솔한 행동으로 하여 통주(동림군)에서 고려군의 기본전선이 무너지고 거란군이 개경으로 접근해오자 비겁한 봉건관료배들은 적에게 투항할것을 왕에게 설교하였다.

이때 강감찬장군은 개경(개성)을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전투력량을 다시 정비하여 적들과 맞서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강감찬장군이 세운 전략전술에 따라 력량을 재정비한 고려의 군대와 인민은 개경주변을 비롯하여 침략자들의 마수가 뻗치고있는 곳마다에서 적들에게 련속적인 타격을 가하여 무리죽음을 안기였으며 청야전술로 적들을 곤경에 빠뜨리였다. 텅빈 개경에 기여든 적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허덕이였고 고려군의 배후작전으로 도망칠 길마저 끊기울 위험에 처하게 되자 개경에 기여든지 10일만에 총퇴각하였으며 1011년 1월 29일 압록강을 건너 제 소굴로 도망쳤다.

명장으로서의 강감찬의 지략은 3차 반거란전쟁에서도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강감찬의 지휘밑에 거란침략자들을 완전히 격멸하고 전쟁을 마감지은 구주결전(1019년 2월)에서의 자랑찬 승리는 력사에서 《구주대첩》(구주대승리)으로 불리워지고있다.

강감찬이 애국명장으로 이름떨칠수 있은것은 그가 문무를 겸비한 유능한 군사가, 정치가인데도 있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한 조선인민의 슬기와 용맹을 잘 조직동원하였기때문이였다.

그는 그후에도 나라방위에 힘쓰다가 말년에 은퇴하여 저술활동을 하였으며 83살을 일기로 사망하였다.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강감찬장군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조국강토를 보위하려는 애국정신을 가지고 옳은 전략과 전술, 능숙한 지휘로 전쟁승리에 크게 기여한것으로 하여 조선인민들속에서 애국명장으로 그 이름길이 전해지고있다.

차광혁

민족의 향취짙은 곳에서

얼마전 우리는 조국을 방문한 해외동포들과 함께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하고 묘향산도 탐승하며 한 이틀간 향산군에 머물렀다. 호텔에서 하루밤을 자고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나 산촌의 새벽공기를 한껏 들이키며 향산읍지구를 산책하던 동포들속에서 년로한 백발의 한 동포로인만은 일행의 걸음에 발을 맞추지 못하고 두리번거리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왔다는 문순렬동포로인이였다.

《청천강은 옛 그대로인데… 집이라군 몇채 없던 이 고장에 집도 많이 생기고… 어디가 어딘지 통 분간을 못하겠군.》

조선이 해방되기 두해전에 부모를 따라 이 고장을 떴다는 로인은 시간이 없어 자기 고향을 품놓고 돌아볼수도 없겠고 또 이제는 나이가 많아 고국에 한번 더 올수도 없을것 같고 하며 꽤 서운해하였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그의 마음을 대신해주고싶었다. 하여 며칠후 《고향소식》란에 실을 내용을 위해 다시 향산군에 대한 취재길에 올랐다.

읍내건축물들은 모두 조선식건축양식을 띠고 있었는데 민족적인 건축술의 세련미를 다시금 느끼게 하였다.

우리를 마중한 군의 일군인 김철수는 해방후 향산군이 걸어온 로정에 대해 하나하나 이야기해주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주체36(1947)년 5월 향산군에 대한 첫 현지지도의 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십차례나 이곳을 찾으시여 군내 인민들의 생활향상과 군을 꾸리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묘향산골안과 향산읍지구에 짓는 집들은 다 조선식으로 지어 이곳이 고구려맛이 나게 해야 한다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시였다는 일군의 이야기는 우리의 심금을 울리였다.

일군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먼저 찾은 곳은 조선식살림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서있는 향산군 읍 22인민반에서 사는 김복수로인의 집이였다. 알고보니 그는 일본에서 살다가 조국의 품에 안긴 사람이였다. 향산군에서 사는 재미가 어떤가고 묻는 우리에게 그는 나라의 혜택속에 걱정없이 이곳에서 사는지는 60년을 가까이하고있다고, 나이 85살이지만 아직도 정정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자기가 장수할수 있은 비결의 하나가 아마 묘향산의 공기와 물의 덕인듯싶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어 우리는 향산소학교에로 발걸음을 옮겼다. 학교마당에 들어서니 넓은 부지에 들어앉은 조선식건축양식인 합각지붕을 한 학교의 운동장에서는 학생들이 여러가지 운동을 하고있었다.

교장 신상범의 말에 의하면 학교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속에 솟아난 학교라고 한다. 그이께서는 이곳 학생들이 도시아이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학교를 지어주자고 하시며 건물은 3층으로, 지붕은 조선식으로 청기와를 씌운 교사를 지어주도록 은정어린 조치들을 다 취해주시였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들을 나라의 역군으로 키우시기 위해 교수교양에 필요한 수많은 교구비품들과 악기, 박제품들을 보내주시였다.

우리는 군인민병원에도 들려보았다. 읍지구의 거의 모든 건물이 그러하듯이 병원도 민족적건축양식의 건물이였다. 그 어떤 치료도 능히 할수 있게 물질기술적토대가 충분히 갖추어진 병원에서는 선조들이 창조한 고려의학을 발전시켜 환자치료에서 성과를 이룩하고있었다.

자기의것을 사랑하고 자기의것을 내세우며 장려하는 향산사람들의 모습은 어린이들이 민족옷을 차려입고 민족악기인 가야금과 장고를 연주하는 향산유치원이며 관광객들의 인기를 모으는 기념품을 생산하는 기념품공장 등 우리가 찾은 그 어느곳에서나 볼수 있었다. 뿐만아니라 우리가 만나본 이 고장 사람들모두에게서 자기 고향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느낄수 있었다.

산천경개 수려하고 민족적정서가 짙은 이러한 향산군에 세계의 수많은 국가수반들과 정계, 사회계인사들, 각계층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올린 귀중한 선물들이 전시되여있는 국제친선전람관까지 조선식건축물로 웅장하게 자리잡고있으니 이런 뜻깊은 고장에서 사는 사람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왜 높지 않으랴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주었다. 정녕 절세위인들의 사랑의 손길아래 인민의 락원으로, 민족의 향취짙은 곳으로 전변된 향산군의 더욱 밝아질 모습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듯싶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향산군의 일부

향산소학교에서

산촌의 물놀이장

묘향산의료기구공장에서

시대정신을 안고 사는 로작가

우리 조국에는 붉게 타는 단풍처럼 인생의 진면모가 황혼기에 더 빛을 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조선작가동맹 강원도위원회 작가 박룡호도 그들중의 한사람이라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그에 대해 동료들은 《그 사람이야 가슴에 단 훈장보다 더 빛을 뿌릴 그런 마음을 안고 한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다. 그는 가슴속에 불덩이같은 시대정신을 안고 불같이 사는 사람이다.》고 말하였다.

실지 우리는 그와의 첫 대면에서 그것을 느낄수 있었다. 그가 얼마나 집필에 열중했던지 우리가 함께 동행한 일군의 안내를 받으며 그의 창작실에 들어섰어도 그는 사색의 세계, 창작세계에 푹 잠겨있었다. 그런 그였기에 그는 우리와 만나서도 방금 집필중이던 과학환상소설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하는것이였다.

1년을 10년 맞잡이로 비약하며 만리마속도로 내달리는 조국의 전진을 과학과 기술로 추동해가는 조선의 발명가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우리 조국에서뿐아니라 세계의 진보와 발전은 과학자, 기술자들의 발명 즉 발명가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발명의 시초는 과학환상이나 그러한 문학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수 있다. 나는 나의 작품들이 비록 미숙한것이지만 새 세대들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들로, 과학기술강국건설에서 한몫 단단히 할 발명가들로 자라나게 하는데 조금이나마 이바지되리라는 기대를 안고 과학환상소설을 창작하고있다.》

박룡호

독자들의 의견도 들어보며

그러면서 그는 약동하는 조국의 숨결에 맞추어 하루빨리 소설을 완성하여 새 세대들에게 안겨주어야 하겠는데 이제는 로년기인지라 육체가 따라서지 못하는게 안타깝다고, 그렇지만 정력을 다해 빠른 기일에 집필을 끝내겠다고 하는것이였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54년전에 일본땅에서 살다가 배움의 꿈을 안고 18살 홀몸으로 조국의 품에 안긴 사람이였다. 당시 그의 가슴속에 깊이 자리잡은것은 오사까에서 자기를 배워주던 선생님이 《만약 학생들중 한명만이라도 조국의 영웅으로 된다면 그것은 우리 학교의 최고의 영예이며 해외민족교육의 승리로 될것이다.》라고 하던 말이였다.

그는 조국에 온 후 늘 선생님의 그 말을 되새겨보며 그렇게 살기 위해 애썼다.

대학을 졸업하고 교원생활을 시작할 때에도, 작가가 되여 과학환상소설창작에 달라붙었을 때에도 비록 영웅은 못된다 하더라도 나라를 위해 무엇인가 기여해야 한다는 결심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잡고있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것이 문학이였고 과학환상소설창작이였다.

사실 과학환상문학은 매개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의 3대추진력의 하나로 주장되고 그런 의미에서 창작가들의 임무 또한 매우 큰것이였다. 그에 비해 볼 때 아직은 그에게 문학적자질과 함께 조선어에 대한 깊은 지식을 비롯해서 부족한것이 너무도 많았다. 그리하여 그는 다른 나라 장편소설들을 조선말로 번역출판하는 과정과 꾸준한 작가수업을 통하여 소설가의 체모를 하나하나 갖추어나갔으며 그렇게 쌓아지고 축적된 지식과 능력으로 과학환상장편소설창작을 진척시켜나갔다.

창작은 가정에서도

그 과정에 병마에 쓰러진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집단과 동지들의 방조속에 다시 힘과 용기를 내여 끝내는 과학환상장편소설 《푸른 좌표》를 세상에 내놓게 되였다.

소설은 과학의 높은 경지에 올라선 조선의 과학자들의 지적인 높이와 애국심을 환상적수법으로 훌륭히 보여준것으로 하여 전문가들과 독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그는 그에 만족하지 않고 련이어 과학환상작품창작에 진입하였으며 그후 여러편의 작품들을 내놓을수 있었다.

그는 비록 육체는 황혼기에 이르렀지만 오늘도 배워주고 키워주고 내세워준 고마운 조국을 위해 자기를 다 바치려는 충정의 마음과 나라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힘있게 과시되는 벅찬 시대정신을 안고 청춘의 기백으로 과학환상소설창작에 지혜와 열정을 쏟아붓고있다.

글 본사기자 최기철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상 식

외국어를 배우면 뇌세포의 로화를 막을수 있다

어린애가 태여난 후 방바닥에서 기여다닐 때 대뇌에는 약 140억개의 뇌세포가 있다.

20살이후에는 뇌세포가 매일 약 10만개씩 로쇠되거나 죽는다.

그러나 늘 머리를 쓰면 뇌세포의 로화와 사멸속도를 늦출수 있다.

자료에 의하면 50살이후 뇌세포의 로화를 막는데서 제일 좋은 방법은 외국어를 학습하는것이라고 한다. 그것은 외국어의 어휘, 문법을 기억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외국문을 자기 나라의 글로 번역하려면 뇌세포의 기능을 최대한 발동해야 하기때문이다. 즉 기억력, 리해력, 분석력, 창조력 이 4가지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것으로 하여 뇌세포를 단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된다.

* * *

로씨야 깜챠뜨까주 옐리조보시 크라스노야르스까야거리 9번지 엄길종삼촌 앞

새 집에서 삼촌을 기다리겠습니다

삼촌, 안녕하십니까.

삼촌을 만나던 때가 엊그제같은데 벌써 여러달이 지나갔습니다.

삼촌이 오셨을 때 제가 드린 고려약을 잡숫고 아프던 다리가 좀 나았는지요? 삼촌의 관절염치료에 그 약이 좋다면 제가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시험을 친다던 삼촌의 외손자는 어련히 대학에 입학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삼촌은 《우리 손주가 참 공부를 잘한다.》며 얼마나 자랑을 하셨나요? 대학시험만 아니였더라면 삼촌의 딸과 사위, 외손자까지 모두 평양에서 만나보는건데 참 아쉽습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 때 조국에 꼭 함께 오십시오.

저는 삼촌에게 한가지 기쁜 소식을 전하고싶어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삼촌이 조국을 떠난 이후 며칠 안있어 우리 가정에 경사가 났습니다.

우리 딸 미향이네 식구가 려명거리의 새 집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몸소 참석하시여 준공테프를 끊으신 바로 그날 삼촌도 조국에 온 기회에 그 준공식에 참가하였었지요.

그날 삼촌도 다 보았겠지만 고층, 초고층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 편의봉사시설들 그 어느것할것없이 손색없이 꾸려진 려명거리는 낮에도 밤에도 선경을 이루고있습니다.

살림집내부도 정말 훌륭하답니다.

우리 딸네 집은 려명거리 입구에 서있는 33층짜리 살림집의 32층 1호입니다.

새 집에 처음으로 들어선 그날 미향이네와 저를 비롯한 온 가족은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 8살난 자식까지 세식구가 120㎡나 되는 네칸짜리 집을 통채로 쓰고살게 되였으니 말입니다. 거기에 여러가지 가구들이 갖추어져있지, 부엌이며 위생실도 생활에 매우 편리하게 꾸려져있지… 정말 부러운것 없는 집입니다. 부부방에 있는 베란다에 나가보니 려명거리와 함께 온 평양시가 한눈에 안겨와 그저 《야-, 야-》 하는 환성만 저절로 터져나왔습니다. 베란다화단에 군인건설자들이 심어놓은 한뽐만 한 꽃나무들에는 바람에 꺾일세라 버팀목까지 세워져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며칠동안은 너무도 꿈만 같아 밤새 한잠도 자지 못하였습니다. 생각할수록 우리 제도에 대한 고마움이 가슴에 가득차오릅니다.

우리 사위와 딸은 나라의 은덕에 보답하겠다며 직장일에 더욱 극성입니다. 그래 제가 딸네 집에 가서 소학교에 다니는 외손자를 돌봐주고있습니다. 외손자 자성이는 이제 크면 아버지처럼 과학자가 되겠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벌써부터 수재로 학교에서 손꼽히고있습니다.

저는 이번 편지에 미향이네 집앞에서 저와 우리 령감, 딸, 외손자, 며느리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냅니다. 사위와 아들 명철이, 경철이가 출장중이여서 사진을 찍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아쉬워할겁니다. 그리고 11월 초쯤에는 우리 며느리가 해산을 하게 됩니다.

삼촌, 다음번 조국에 오시면 려명거리에 있는 미향이네 집에 꼭 오십시오. 우리 온 식구가 삼촌과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그날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평양시 평천구역 해운1동 92인민반
엄복실조카 올림

자력자강이 제일이다

나는 15년째 고국을 방문하여 해마다 봄철과 가을철에 진행되는 평양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하고있다.

고국으로 떠나올 때까지만 해도 조선반도의 정세가 전례없이 긴장되여있는것으로 하여 위구심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1년도 안되는 사이에 몰라보게 달라진 고국의 모습을 보면서 위구심은 순간에 사라져버리였다.

사람들의 얼굴은 여느때처럼 그늘 한점없이 밝았고 옷차림도 예전보다 더 화려하였으며 려명거리에는 고층, 초고층살림집들이 솟아있었다. 이 모든 변화는 나를 정말 기쁘게 하였다.

제20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에는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여러 나라와 지역의 회사와 기업관계자들이 공동의 부흥과 발전, 친선과 협조의 리념을 안고 참가하였다.

전람회에 출품된 고국의 제품들을 보면서 나는 종류와 가지수가 지난번보다 훨씬 늘어났을뿐아니라 질도 대단히 높아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였다.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평양에서 국제상품전람회가 성황리에 열리고 자체의 힘과 기술, 자재와 로력으로 만든 고국의 제품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국제무대에 등장하고있는것과 같은 성과는 고국인민들이 발휘해나가는 자력자강의 정신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고 본다. 역시 자력자강이 제일이다.

나는 나의 고국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 해외에 살고있지만 조선민족의 한 성원이 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고국의 부흥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적은 힘이나마 바쳐나가겠다.

중국 료녕성심양은덕오금수출입유한공사 배옥희

진달래원을 돌아보고

나는 이번 고국방문기간에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참관하였다.

이 공장에는 비단실을 생산하는 깨끗한 현장과 이불생산공정, 호텔이나 궁전이라는 이름과도 나란히 할수 있는 로동자합숙, 종합적인 편의봉사기지인 진달래원 등이 있었다.

공장에서 특별히 나의 눈길을 끈 곳은 진달래원이였다. 진달래원은 공장의 로동자들이 자체의 힘으로 건설하였다고 한다.

그곳에서는 하루일을 마친 공장의 녀성로동자들이 목욕과 미용 그리고 수영을 비롯한 여러가지 운동을 하며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피로도 풀면서 진달래 그 이름처럼 자기들을 아름답게 단장하고있었다.

진달래원에서 마음껏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있는 녀성로동자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정말 부러웠다. 그리고 고국에서 로동자들을 얼마나 아끼고 내세우고있는가를 잘 알수 있었다.

더 훌륭하고 더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해나가는 고국의 인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가까운 앞날에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진달래원은 봄을 먼저 알리며 피여나는 아름다운 진달래라는 이름과 더불어 나의 기억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을것이다.

끼르기즈스딴고려인통일련합회 회원 지 나이다

第19차 **김일성**화축전장을 찾은 재중동포들

고국방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지난 4월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로일군대표단, 중국 단동시조선족경제문화교류협회대표단이 조국을 방문하였다.

동포들은 조국방문의 나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려명거리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평양초등학원을 돌아보았다.

려명거리를 돌아보면서 동포들은 웅장하고 현대적이면서도 아름다운 거리의 모습에 반하여 눈길을 떼지 못하였고 자기들의 격정을 터치였다.

《려명거리의 조형화와 예술화, 록색화가 높은 수준이다.》, 《1년도 못되는 기간에 하나의 거리를 일떠세웠다는것이 정말 놀랍다.》, 《려명거리를 보니 조국의 경제적잠재력, 자력자강의 거대한 힘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였다.》…

동포들은 위대한 수령**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5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도 보았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로일군대표단 주영자동포는 《열병식과 군중시위는 핵보유국, 군사강국으로 솟아오른 조국의 막강한 군력과 일심단결의 위력을 과시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이밖에도 동포들은 제19차 **김일성**화축전장, 평양중등학원, 평양초등학원, 과학기술전당, 평양양로원 등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과학기술전당을 찾았다.

이르는 곳마다에서 동포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에 젖어있었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놀라운 기적을 창조해가는 조국인민들의 일본새에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최세진동포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조국의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대하여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몸은 비록 해외에서 살지만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통일애국사업에 모든것을 바쳐갈 각오가 더욱 굳어진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평양양로원의 로인들과 함께

애국은 실천에 있다

김원백

푸른 하늘을 향하여 억세게 자라는 나무가 끝없이 부강번영하는 조국이라면 그 거목을 떠받드는 뿌리는 수천만조선민족의 애국의 마음이라고 말할수 있다.

지난해 3월, 카나다에서 살고있는 《푸른통일조국가꾸기운동》대표 김원백동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애국상을 받아안았다.

애국상 상장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있었다.

《조선민족의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열렬한 애국심을 발휘하여 조국의 강국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사업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애국상과 함께 애국상은메달을 수여함》

김원백동포는 상장의 글을 읽어보고 손으로 메달을 쓸어도 보면서 자기가 조국에 바친 소박한 그 마음을 애국적소행으로 그토록 값높이 헤아려주는 조국의 그 진정에 눈시울을 적시였다.

그날 김원백동포는 신미리애국렬사릉을 찾았다.

조국의 해방과 사회주의건설, 나라의 통일을 위한 길에 뚜렷한 자욱을 새긴 애국렬사들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는 동포의 눈앞에는 조국의 산과 들을 더 푸르게 하기 위해 자기를 다 바쳐온 나날들이 감회깊이 떠올랐다.

주체89(2000)년 어느 봄날, 라선시에 처음으로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심은 김원백동포는 감사의 인사를 보내는 그곳 일군에게 이렇게 절절하게 말한적이 있었다.

《저는 애국자가 되고싶습니다.》

그가 《푸른통일조국가꾸기운동》을 직접 발기하고 조국의 산들을 더욱 푸르게 하려는것은 그 어떤 명예나 평가를 위해서가 아니였다.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고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놓고 사회주의락원을 가꾸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제국주의렬강들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고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와 흠모심이 그의 가슴속에 꽉 차고 절세의 위인들께서 그토록 열렬히 사랑하신 조국땅에 자기의 마음마저 깡그리 쏟아붓고싶었던것이였다.

《애국자가 되고싶다!》, 이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였다. 그의 신념이였다.

조국에 하나라도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하기 위해 고심하던 김원백동포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후과로 적지 않게 피해를 입은 조국의 산림을 하루빨리 복구하도록 하기 위해 늘 마음쓰신다는것을 알게 되여 조국인민들의 산림복구사업을 도울 결심을 하게 되였다. 빨리 자라고 경제적가치가 큰 나무모들을 구입하기 위해 그가 발이 닳도록 다닌 거리만 해도 그 얼마인지 모르며 모자라는 시간과 자금을 위해 바친 노력 또한 그 얼마인지 모른다.

하여 김원백동포가 주체89(2000)년부터 바쳐온 뜨거운 지성에 의해 평양을 비롯한 조국의 여러곳에 널리 퍼져 숲을 이룬 나무들이 오늘은 거의 1억그루에 이르렀으며 양묘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들도 수없이 마련될수 있었다. 뿐만아니라 그는 해마다 여러차례 조국을 찾아와 직접 나무를 심기도 하고 심은 나무들의 성장을 관찰하기도 하였다.

김원백동포는 《푸른통일조국은 한두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열어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주체96(2007)년 4월 남조선에 《겨레숲》을 창설하고 리사로 활동하면서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인민들과 힘을 합쳐나갔다. 반통일세력의 도전으로 지난 수년간 《푸른통일조국가꾸기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애국투쟁의 길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을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그 나날 김원백동포는 박근혜탄핵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지지성원하여 서슴없이 손에 초불을 들었고 괴뢰들의 인권모략책동에 의해 남조선에 강제로 끌려간 김련희녀성을 여러차례 만나 동포애를 더해주면서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도록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오늘 김원백동포는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카나다서부지역 위원장으로서 일흔을 바라보는 고령의 나이이지만 통일애국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가고있다.

그의 생의 흔적은 애국이 결코 빈말이 아니며 실천에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연옥

올 때마다 달라지는 조국의 모습

나는 몇년째 거의 해마다 조국에 온다.

그런데 놀라운것은 조국의 모습이 올 때마다 달라지는것이다.

올해에도 조국은 역시 지난해와 또 다르게 변모되였다.

나날이 발전하는 조국의 이런 모습을 대할 때면 가슴이 막 벅차오른다.

지금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하여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하지만 조국인민들은 그 모든것을 짓부시며 자기의 힘으로 보란듯이 삶의 터전을 가꾸어가고있다.

이러한 조국이 있기에 해외에 있는 우리들도 신심과 희망에 넘쳐 통일애국사업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가지라도 더 하기 위하여 힘껏 노력하고있다.

지금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악랄한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으로 조국을 믿고 따르는 우리 해외동포들의 마음을 흔들어놓으려고 별의별 못된짓을 다하고있다.

그러나 적들의 그런 너절한 책동에 마음이 흔들릴 우리가 아니다.

우리는 조국인민들과 함께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치는 심정으로 마음과 마음을 합쳐 조국을 위한 더 좋은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 애쓰고있다.

그리고 나날이 발전하는 조국의 숨결을 느끼기 위하여 자주 조국방문의 길에 오르기도 한다.

앞에서 이미 말하였지만 우리는 지난해 조국에 와서 주체사상탑과 과학기술전당, 미래과학자거리 등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돌아보았고 천하제일명산인 아름다운 금강산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기도 하였다.

정말이지 그 나날 우리는 조국이야말로 인민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나라라는것을 심장깊이 절감하게 되였다. 그리고 이런 조국의 해외공민이 된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뿌듯이 느끼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조국에 와보니 지난해와는 또 다른 모습이 나의 눈앞에 펼쳐졌다.

중앙동물원과 자연박물관, 평양중등학원 등 인민을 위한 교육문화 및 봉사기지들이 가는 곳마다에 일떠서고 인민들은 사회주의문명을 마음껏 향유하고있었다.

그 어디를 들려보고 그 누구를 만나보아도 행복에 겨운 인민의 웃음뿐이였다.

나는 이번에 조국에서 살고있는 친척들도 만나보았다. 그들은 나에게 조국의 존엄이 얼마나 높은 경지에 올라섰는가를 알기 쉽게 말해주었다.

그리고 해외에서 살고있는 우리 가족도 조국의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 등에서 휴식의 한때를 보내면서 조국인민들이 누리는 행복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실지 체험해보자며 절절하게 자기들의 심정을 터놓기도 하였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생각하였다.

나날이 변모되는 조국의 모습은 곧 힘차게 전진하는 조국의 모습이며 숭고한 인민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령도자로 모시여 조국인민들은 그렇듯 긍지가 높은것이라고.

정말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제재와 압살책동속에서도 자기의 힘으로 꿋꿋이 앞으로만 나아가는 조국이 있기에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조국인민들과 발걸음을 맞추어나가기 위해 애쓰고있는것이다.

나는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그 어떤 강적과도 맞설수 있는 국력을 갖춘 조국이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조국의 부강번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하며 민족의 최대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하여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나의 모든 힘을 다하겠다는것을 다시금 결의하게 된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연수현지부 박흥권
[주체105(2016)년 12월]

미래가 창창한 나라

나는 고국방문이 처음이다.

사실 나는 지금껏 고국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어온것으로 하여 뒤숭숭한 마음을 안고 고국을 찾았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고국에 대한 옳바른 견해를 가지고있지 못한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다.

이번에 내가 고국에 간다고 하니 어떤 사람들은 당장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곳에 왜 가는가고 하면서 의문을 표시하였다.

하지만 왜서인지 나는 그들의 목소리보다도 꼭 고국에 한번 가보고싶은 심정을 금할수가 없었다. 그것은 고국에 대한 좋지 못한 소리를 들을수록 어째서인지 가보고싶은 충동이 더 커졌기때문이다.

그런데 고국의 현실은 내가 듣던바와는, 생각했던바와는 전혀 달랐다.

평양역에 도착한 순간부터 고국인민들은 우리를 동포애의 정으로 반갑게 맞아주었다.

봉사원들은 우리들의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이 있을세라 따뜻이 보살펴주었고 또 식성까지 헤아려 음식을 구미에 맞게 해주느라고 왼심을 써주었다.

혈육의 정은 숙소에서뿐아니라 가는 곳마다에서도 느낄수 있었다.

고국인민들이 기울이는 따뜻한 사랑보다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고 큰 감동을 받게 한것은 발전된 고국의 모습, 평양의 모습이였다.

어디에 가보나 거리와 마을들은 깨끗하게 정돈되여있었으며 하늘을 찌를듯이 높이 솟은 초고층, 고층건물들과 가는 곳마다에 일떠선 기념비적건축물들은 나날이 발전하는 고국의 모습을 잘 알게 해주었다. 그리고 거리로 오가는 사람들은 생기에 넘쳐있었으며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밝은 웃음이 비껴있었다.

우리가 평양초등학원과 평양중등학원에 갔을 때였다.

평생 교원을 한것으로 하여 교육사업에서는 그만하면 모르는것이 없다고 자부하는 나였다.

그러나 평양초등학원과 평양중등학원의 교육조건과 환경은 나의 상상을 초월하였다.

원아들의 지적발전에 도움을 주게 복도와 천정들에는 상식, 지식판들이 걸려있었는데 그 모든것들이 얼마나 생동하고 원아들의 심리에 맞게 되여있는지 어리둥절할 정도였다.

더우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학원에 오시여 원아들의 학습과 생활조건에 대하여 세심히 알아보시고 그들모두는 자신의 아들딸들이라고 하시며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돌려주시였다는 학원일군의 이야기는 나의 놀라움을 더욱 크게 하였다. 다른 나라에서는 간부들이 학교에 한번 나와보는것도 대단한 일처럼 생각하는데 나라일이 그처럼 바쁘신 령도자께서 원아들의 학원에까지 찾아오시여 관심과 배려를 돌려주시니 어찌 고국이 발전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참으로 고국은 미래가 보이고 희망이 넘쳐나는 나라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나는 그것을 1년도 안되는 사이에 완공했다는 멋들어진 려명거리를 보면서도 그러했지만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5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를 통하여 더 잘 알

게 되였다.

자로 그은것처럼 줄을 맞추어 척척 나아가는 인민군군인들과 자체의 힘으로 만든 현대적인 무장장비들,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인민들의 규모있고 째인 모습을 보며 고국의 힘, 고국의 위대함을 가슴깊이 절감하였다.

저녁에 진행된 청년학생들의 야회 또한 얼마나 환희롭고 멋있는지 나 혼자서 보는것이 막 아쉬웠다.

제국주의자들의 극악한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를 안고 자기힘으로 힘차게 앞으로만 나아가는 나라는 고국뿐이라는 생각에 격동되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이런 강한 고국이 있어 겨레의 통일은 반드시 이룩될것이다.

이제 돌아가면 나는 끝없이 창창한 미래가 보이는 고국에 대하여 우리 로인협회동포들에게 알려주어 그들이 고국을 잘 알고 민족의 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도록 적극 떠밀어주겠다.

중국 심양시 조선족로인협회 황충길

대동강문화

세계적으로 볼 때 고대문명은 산천이 수려하고 땅이 비옥한 강류역에서 형성되였으며 그것은 일반적으로 강이름과 결부된 문화로 불리워왔다.

세계적으로 인류문명이 처음으로 창조된 지역들로는 조선의 대동강류역과 함께 에짚트의 닐강류역, 서남아시아의 량강류역 등이 속한다.

이 지역들을 인류문화의 5대발상지라고 하며 이 지역들에서 발전한 문화를 세계5대문명으로 일러오고있다.

대동강문화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역에서 발생한 고대문화이다.

B. C. 30세기초 동방의 첫 국가로 세계적으로도 일찌기 형성된 고조선은 인류력사의 첫 시기부터 평양일대를 중심으로 하여 고대문명을 창조하여왔다.

발굴된 유적, 유물에 의하면 대동강류역은 원인, 고인, 신인 등 인류진화의 순차적단계를 거쳐오면서 농경문화를 위주로 하는 높은 수준의 청동기문화와 천문, 문자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문화발상지의 하나였다.

특히 단군릉과 대동강류역에 집중된 고인돌무덤, 단군조선의 국가적성격을 실증해주는 고대성곽들과 고대부락터들, 문명사회의 발전면모를 보여주는 청동제유물들과 고대천문도유적(별자리가 새겨져있는 고인돌무덤) 등 대동강류역에서 드러난 고조선시기의 유적유물들은 평양이 고대문명의 발원지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대동강문화는 이전 시기 모든 단계의 문화가 순차적으로 련면히 발생발전한 유구한 력사적뿌리를 가지고있는 문화로서 단일성과 독자성, 계승성이 뚜렷한 우수한 문화이다.

대동강류역에서는 이를 실증해주는 고고학적자료들이 많이 발굴되였다.

대동강류역의 황해북도 상원군(당시 평양시 상원군) 흑우리에서는 구석기시대 전기 원인들이 살던 검은모루유적이 이미 오래전에 드러났고 평양시 력포구역의 대현동유적과 평안남도 덕천시 승리산동굴유적에서는 《력포사람》, 《덕천사람》으로 불리우는 고인의 화석이 발견되였으며 뒤이어 신인의 화석들도 발굴되였다.

이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의 유적들과 인류화석들은 바로 대동강류역이 인류발상지의 하나, 인류의 초기문화가 싹튼 곳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대동강류역은 고대문명의 발상지인 동시에 고대문화의 중심지였다.

대동강류역이 고대문화의 중심지였다는것은 우선 단군조선시기의 문화를 대표하는 고인돌무덤과 돌관무덤이 이 강류역에 가장 많이 분포되여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고인돌무덤은 함경남북도, 량강도, 강원도, 중국의 료동지방에서는 각각 100~500여기가 알려졌지만 대동강류역에는 초보적인 자료에 의하더라도 1만 4 000여기가 분포되여있다. 그것도 다른 지역에서는 볼수 없는 초기형으로부터 말기형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시기의것이 다 있으며 특대형고인돌무덤도 다른 지역들에 비할바없이 많다.

대동강류역에서 도시를 방불케 하는 큰 부락터유적들이 많이 발견된것도 고대문명의 중심지에서만 볼수 있는것이다.

또한 청동주조기술과 가공기술에 의해서만 만들수 있는 비파형창끝을 비롯한 세련된 청동제유물들의 발견은 대동강류역이 비파형단검문화의 중심지라는것을 보여준다.

단군조선시기 평양의 밤하늘에서 볼수 있었던 40여개의 별자리가 새겨져있는 고인돌무덤들은 당시 대동강류역이 인류고대천문학의 발원지라는것을 보여주는것으로서 대동강문화의 발전수준을 엿보게 하는 또 하나의 실례이다.

대동강류역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이른시기에 선진경작법을 도입한 오곡농사가 발전하였다는것도 알려졌다.

제반 사실은 대동강류역이 인류의 발상지, 고대문화의 중심지의 하나로서 일찌기 고대문명이 싹트고 꽃펴난 곳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참으로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역은 조선민족문화의 발상지, 반만년전부터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인류문화의 보물고를 빛나게 장식해주는 문화적재부가 가득차있는 자랑스러운 력사의 고장이다.

본사기자 김솔미

조국의 천연기념물 (8)

리원팽나무

함경남도의 천연기념물로는 리원팽나무, 속후회화나무, 곡구리백리향군락, 청백향나무, 옥련산돌강, 정평백로가 있습니다.

리원팽나무는 함경남도 리원군 소재지에서 동북쪽으로 10km가량 떨어진 동해바다 가까운 곡구리에서 자라고있습니다.

이 리원팽나무는 우리 나라 팽나무들가운데서 가장 크며 생김새가 아름다와 학술연구에서나 자연풍치를 돋구는데서 의의가 크므로 적극 보호관리되고있습니다.

나무의 높이는 27m, 밑둥둘레는 3.25m, 가슴높이둘레는 2.4m이며 나무갓의 직경은 15m입니다. 원대는 3m의 높이에서 두 갈래로 갈라졌으며 둥근모양의 나무갓을 이루고있습니다.

꽃은 5~6월경에 피고 열매는 9월에 검은보라색의 굳은씨열매로 익습니다.

속후회화나무는 함경남도 금호지구의 속후리에 있는 나무입니다.

150년이상 자란 회화나무로서 우리 나라의 회화나무분포의 북한계선에 있으며 학술연구상 의의가 있고 풍치가 좋은것으로 하여 적극 보호관리되고있습니다.

나무의 높이는 21.5m이고 밑둥둘레는 3.18m, 가슴높이둘레는 2.6m이며 나무갓의 직경은 9.7m입니다.

나무껍질은 좀 어두운 재색이고 얕게 터갈라져있습니다. 잎은 길둥근모양을 하고있으며 여름철에 가지끝에서는 누르스름한 흰색의 꽃이 핍니다. 가을에는 열매가 달리며 씨앗들이 들어있는 부위는 도드라져있습니다.

곡구리백리향군락은 함경남도 리원군 곡구리의 속새산에 퍼져있습니다. 리원군일대에는 백리향이 많이 분포되여있는데 특히 속새산에 집중되여있습니다.

이 백리향무리는 속새산비탈의 넓은 구간을 차지하고있는데 제일 많이 퍼져있는구역은 보호구역으로 정해져 잘 관리되고있습니다.

주변에는 아카시아나무, 싸리나무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떨기나무들이 자라고 새초류, 생당쑥 등이 자라고있습니다.

곡구리백리향군락은 학술적 및 경제적의의가 큰 천연기념물입니다.

청백향나무는 함경남도 금야군 청백리에 있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향나무의 크기와 나이를 연구하는데서 의의가 크므로 적극 보호관리되고있습니다. 나무의 높이는 10m이고 밑둥둘레는 4.5m, 밑둥직경은 1.5m입니다.

원줄기는 높이 0.5m에서 두갈래로 갈라졌으며 그가운데서 한쪽 가지의 둘레는 2.8m이고 다른쪽 가지의 둘레는 2.1m입니다.

청백향나무

나무는 잎들이 아름답고 건전해서 보기가 매우 좋습니다.

청백향나무는 400년이상 자란 나무로 알려지고있습니다.

옥련산돌강

옥련산돌강은 함경남도 부전군에 있는 옥련산의 남서쪽 비탈면골짜기로 흐르는 강의 상류에 있습니다.

옥련산돌강은 옥련산봉우리에 돌무지를 이루고있던 암괴들의 일부가 강물이 흐르는 골짜기를 따라 이동되여 깔린것으로서 자연의 신기함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옥련산돌강이 시작되는 곳의 해발고는 약 1 850m이고 끝나는 곳의 해발고는 1 460m입니다. 너비 120m, 길이 700m나 되는 옥련산돌강은 돌밭밑으로 흐르는 물소리만 들리고 물은 보이지 않으며 표면경사는 10° 정도입니다.

정평백로

돌들의 쌓임두께는 평균 4~5m이며 골짜기부분에서는 15~20m입니다.

돌들의 모서리는 어느 정도 닳아졌으며 형태는 불규칙적이고 크기가 각이한 립방체, 판상체를 이루고있습니다. 현재 식물들이 덮인 부분까지 합치면 옥련산돌강의 길이는 2km입니다.

옥련산돌강은 옥련산의 풍치를 더더욱 돋구어줄뿐아니라 산악빙하를 연구하는데서 학술적으로 의의가 큽니다.

정평백로는 함경남도 함주군과 정평군사이에 있는 광포(호수)와 잇닿아있는 산태산의 북서부 기슭에 살고있습니다.

소나무숲이 우거진 이 지대로는 주변의 번식지들에서 번식을 마친 백로들이 6월경에 날아옵니다. 백로들은 낮에는 정평벌 등에서 먹이활동을 하다가 밤에는 이곳에 와서 잠을 자며 11월경에 더운 지역으로 날아갑니다.

이 지대는 백로들이 모여드는 장소이고 여름에는 수천마리가 무리를 지어 사는 곳임으로 적극 보호되고있습니다.

본사기자

상 식

공　조

공조는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 왕실과 봉건국가의 건설, 수공업, 도량형, 산림, 강하천, 도로와 관련한 일을 맡아보던 부문별 중앙행정기관의 하나이다.

공조에는 영조사, 공야사, 산택사 등 부서가 있었으며 상의원(왕실용의복, 일용품 등의 제작, 공급, 보관사업담당), 선공감(건설담당), 조지서(종이생산담당), 와서(기와, 벽돌생산담당), 수성금화사(궁성, 도성, 도로, 교량 등의 수축과 화재방지사업담당), 전연사(궁궐의 위생문화사업담당) 등의 관청이 소속되여있었다.

*　　*　　*

눈맛좋고 입맛좋은 명태매운탕

얼마전 저는 대학동창생으로부터 평양호텔 맞은켠에 자리잡은 성흥분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하자는 전화를 받게 되였습니다.

퇴근후 그 식당에서 오래간만에 만나 시원하게 맥주잔을 비우며 이야기를 나누던 우리는 저녁식사를 주문했습니다.

동창생은 이 식당에서는 명태매운탕을 정말 잘하는데 겨울에 먹으면 그 맛이 더욱 좋다고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 던지는것이였습니다.

그 찰나 저는 《민족의 향기》란에 편집하기 위해 고르던 민족음식생각이 떠올라 봉사원처녀에게 《이런 여름철에도 명태매운탕을 맛볼수 있을가요?》라고 물었습니다.

봉사원처녀는 평양호텔에서 숙식하는 해외동포들도 자기 식당의 명태매운탕을 한번 맛보면 그 맛을 잊지 못해 자주 오군 한다고, 물론 겨울철에 갓 잡은 명태로 만든것보다는 좀 못해도 얼벌벌한 명태매운탕맛이야 어디 가겠는가고 말하였습니다.

동포여러분은 명태라는 물고기이름이 귀에 설지 않을것입니다.

조선사람치고 명태를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 말입니다.

명태라는 물고기이름은 함경북도 명천군의 태가성을 가진 사람이 처음으로 잡았다는데서부터 붙여졌다고 합니다.

명태는 대구과에 속하는데 찬물을 좋아합니다.

명태의 몸길이는 보통 35~45㎝, 큰것은 90㎝이상이고 몸질량은 보통 300~900g이며 큰것은 1 800g이나 됩니다.

명태에는 단백질이 14%(명태알에는 24%), 기름이 2%, 적은 량의 당질과 광물질, 미량원소, 비타민(A, B_1, B_2, B_6, E, PP 등)이 들어있습니다.

명태로는 국, 탕, 식혜, 졸임, 전, 순대, 튀기 등 여러가지 료리를 만들수 있습니다.

잠시후 우리 식탁우에 뜨끈뜨끈한 명태매운탕이 흰쌀밥과 함께 김치까지 곁들여 올랐습니다.

우리는 명태매운탕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럼 동포여러분이 명태매운탕을 가정에서도 손쉽게 만들어 먹을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매운탕이란 이름그대로 명태와 같은 물고기, 고기, 남새 등의 음식감에 고추장물을 붓고 끓여서 만든 남비탕의 한가지입니다.

매운탕은 다른 탕보다 국물이 진하고 매우며 독특한 맛과 냄새를 가집니다. 물고기매운탕의 기본재료로는 명태, 도미, 가재미, 붕어 등의 물고기를 쓰며 부재료로서는 고기(소고기, 돼지고기), 두부, 남새 그리고 고추장, 파, 마늘, 기름, 간장, 후추 등 양념감들이 쓰입니다.

명태매운탕을 만들려면 먼저 물좋은 명태를 손질하여 4~5㎝ 길이로 토막을 내고 소고기 또는 돼지고기는 얇게 편을 내여 양념에 재워놓습니다. 두부는 두툼한 편으로, 파는 토막으로, 쑥갓이나 미나리는 씻어 5~6㎝ 길이로 썹니다. 다음 남비에 기름을 두르고 파를 넣어 볶다가 고기를 두고 볶는데 고기가 70%정도 익으면 명태토막을 넣고 여기에 고추장국물을 부어 한소끔 끓이며 이때 떠오르는 거품을 걷어냅니다. 그리고 남새, 두부를 넣는데 두부가 떠오르면 마늘, 깨가루, 후추가루, 맛내기를 넣어 맛을 들입니다. 이것을 덥힌 탕그릇에 담아냅니다.

어떻습니까. 붉은색, 푸른색을 비롯한 여러가지 색갈이 조화되여 보기에도 좋고 얼벌벌하고 뜨끈한 명태매운탕, 입맛을 살려주니 명태매운탕이야말로 건강음식으로는 그저그만인것 같습니다.

혹시 가을철이나 겨울철 기온차가 심하여 감기에 걸렸을 때 명태매운탕을 만들어 잡수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특이한 효과를 볼수 있을것입니다.

동포여러분,

평양에 오는 기회가 생기면 성흥분식당의 명태매운탕도 한번 맛보십시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일본회화사의 첫 페지를 장식한 고구려의 화가

일본 법륭사의 금당에 그린 벽화는 조선의 경주 석굴암(돌굴형식의 절간으로서 조각으로 이름이 높다.), 중국의 운강석굴(불교석굴사원으로서 불상조각으로 유명하다.)과 함께 동양3대미술품의 하나로 세계에 널리 알려져있다.

이 벽화는 동방미술사는 물론 세계미술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그림이다.

동양3대미술품중에서 경주석굴암과 법륭사 벽화 두가지가 조선사람들에 의하여 창조되였다는것은 참으로 자랑할만한 일이다.

금당벽화는 모두 12면인데 그가운데서도 6호벽면의 《아미타정토도》가 제일 우수하다. 벽화는 호분바탕에 연한 선으로 형태를 잡은 다음 색칠을 하였으며 마지막에 형태의 륜곽선을 다시 칠하여 완성하였다.

벽화의 세련된 선묘, 선명한 색채, 깊이있고 률동적이며 균형이 잡힌 조형미 등은 세월이 멀리 흘렀어도 많은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이 훌륭한 미술작품은 고구려의 화가 담징에 의하여 창작되였다.

610년 중이며 화가인 담징은 배를 타고 왜나라로 건너갔다.

그것은 607년에 일떠선 법륭사의 금당에 벽화를 그리기 위해서였다.

법륭사로 말하면 백제의 기술자들에 의하여 건설된 절건축물이다. 법륭사의 여러 건물가운데서도 금당은 가장 화려하고 예술성의 절정을 이루는 중심건물의 하나이다.

당시 이런 금당벽면에 벽화를 그리는 일만은 아무에게나 맡길수 없었다.

하여 왜나라에서는 고구려에 유능한 화가를 보내줄것을 청탁하였다.

고구려에서는 서른살전에 불교경전에 능통하고 미술은 물론 채색과 종이, 먹제조에서 뛰여난 기술을 가진 유명한 학자, 예술가, 기술자로 인정되였던 담징에게 이 일을 맡기였다.

왜나라에 도착한 담징은 사원의 체모에 어울리게 벽화를 완성해나갔다. 부처의 부드럽고 근엄한 얼굴표정, 아름답고 고결한 인상의 두 보살상, 입김으로 불어도 금시 하늘하늘 날릴듯싶은 얇은 옷자락, 그밑에서 살아 숨쉬는듯 한 생동한 육체의 모습…

풀색, 하늘색, 붉은 감색, 재색을 기본으로 하는 선명한 채색이 진한가 하면 연한듯도 하고 두꺼운가 하여 보면 투명한듯도 한 조화를 이루면서 화폭을 웅건한 세계에로 이끌어갔다.

담징이 그린 벽화를 본 사람들은 모든것을 잊어버리고 꿇어엎드리여 합장했다.

벽화는 그때로부터 천수백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대로 보존되여있어 세계적인 보물로, 최고의 미술품의 하나로 여기고있다. 그러한 벽화가 1949년 법륭사가 불탈 때 소실되였다.

1968년에 일본의 수많은 일류급화가들이 모여앉아 원상대로 복구한 법륭사 금당벽에 소실된 부분의 벽화를 다시 그리였지만 그들자신도 원화보다 훨씬 못하다는것을 인정하고야말았다.

담징은 일본에 건너가서 회화뿐아니라 과학기술발전에서도 큰 역할을 하였다.

그는 채색법과 종이, 먹 그리고 물방아를 만들어쓰는 기술을 가르쳐주었다. 이러한 담징의 활동은 일본의 고대정사인 《일본서기》와 《법륭사전》에 기록되여있다.

담징의 뛰여난 학문과 기술, 회화술은 고구려의 과학문화발전수준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고구려의 음악과 무용

고구려는 조선민족의 첫 봉건국가로서 근 천년동안 동방의 강대국으로 명성을 떨치였다. 고구려는 정치와 경제, 군사에서뿐아니라 문화분야에서도 가장 앞서 발전하였으며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이웃나라들에 큰 영향을 줌으로써 삼국시기 력사발전에서 선도자적이며 중심적인 역할을 놀았다.

고구려사람들은 음악을 발전시켜 민족음악발전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고구려사람들은 노래를 즐기였으며 독창, 중창, 합창과 같은 성악형식을 발전시켰다.

고구려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항상 노래부르기를 즐기여왔다. 옛 문헌인 《삼국지》에는 고구려의 《읍락들에서 밤이면 남녀가 무리지어 노래하며 즐긴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하루일을 마치고 모두 춤판으로 모여와 노래부르고 춤을 추면서 로동의 피로를 풀고 래일의 행복을 꿈꾸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노래를 즐기는 생활풍습속에서 우수한 명곡들이 많이 창작되였지만 전해지는것은 《인삼노래》, 《황조가》, 《동동》 등 몇편 안되는 가요들이다. 하지만 그 노래가사나 창작경위를 보면 노래에 담겨진 내용들과 전파력, 생활력에 대하여 잘 알수 있다.

고구려에서 많은 노래들이 창작보급되는 과정에 성악형식이 다양하게 발전하였으며 춤무덤벽화, 장천제1호무덤벽화, 옥도리무덤벽화들에는 독창, 중창, 합창하는 모습이 생동하게 묘사되여있다.

고구려사람들은 다양한 악기들을 창안제작하여 우수한 기악곡들을 창조함으로써 민족기악발전의 토대를 다져놓았다.

고구려사람들은 뿔나팔, 피리, 저대 등과 같은 관악기들, 거문고, 공후 등과 같은 현악기들, 요고, 북, 꽹과리 등과 같은 타악기들을 제작하여 민족음악을 더욱 발전시키였다.

악기들뿐아니라 왕산악이 무려 백여곡의 거문고악곡들을 창작하였고 그 음률이 훌륭하여 검은학이 날아와 내렸다는 《삼국사기》의 기록, 무덤벽화들에 묘사된 연주모습들, 고구려무덤벽화들에 그려진 행렬도들에는 반드시 고취악대가 편성되여있는것, 이웃나라에 전수된 고구려관현악단에 대한 기록들은 고구려에서 음악이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있었다는것을 실증해준다.

고구려사람들은 민족적색채가 짙은 우수한 무용형식들을 창조하여 민족무용발전의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였다.

고구려사람들은 노래만 부르거나 악기만 연주한것이 아니라 거기에 흥겨운 춤가락까지 동반하여 자기들의 생활과 정서를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고구려의 무용들가운데는 칼춤, 창춤, 활춤과 같은 힘있고 박력있는 군사무용들, 긴소매옷춤과 같은 부드럽고 우아한 률동의 섬세한 춤들, 북춤, 《요고춤》과 같은 흥취나면서도 건드러진 양상의 춤, 《기악무》, 《호인탈춤》과 같은 해학적이고 풍자성이 강한 춤, 《소고춤》과 같은 장단성이 강하고 랑만적인 춤 등 주제와 형식이 매우 다양하였다.

고국원왕릉 앞칸 동쪽벽에는 칼과 활을 량손에 든 두명의 무사가 전진하는 대오의 앞에서 칼춤을 추는 모습이 그려져있고 팔청리벽화무덤의 행렬도에도 두명의 군사들이 다양한 칼쓰기동작들을 률동적으로 수행하면서 춤을 추는 모습이 그려져있다.

그뿐아니라 고구려사람들은 탈춤을 즐기면서 우리 민속탈춤의 원형으로 되는 우수한 탈춤들도 창조하였는데 대표적인 탈춤으로서는 《기악무》, 《호인탈춤》, 《소탈춤》 등이 있다.

고구려사람들은 씩씩한 군사무용들이나 해학적인 탈춤뿐아니라 부드럽고 우아한 긴소매옷춤도 많이 추었는데 춤무덤, 장천제1호무덤, 옥도리무덤 등 무려 수십기의 무덤벽화들에서 그 형상을 찾아볼수 있다. 서정적인 음악에 맞추어 부드럽게 팔을 끌어올리거나 내리우면서 추는 우아한 긴소매옷춤의 춤동작들은 팔을 기본으로 놀리는 민족무용기법의 토대로 되였다.

고구려의 음악과 무용은 내용의 풍부성과 형상의 세련성으로 하여 백제, 신라를 비롯한 동족의 나라들에 보급되여 민족예술의 통일적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민족적색채가 강하고 예술형상수준이 높은 고구려의 음악과 무용들은 조선민족예술발전의 튼튼한 토대로, 민족문화의 커다란 자랑으로 된다.

사회과학원 박사 김선영

개성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10)

- 칠릉떼 -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유적가운데는 칠릉떼도 있습니다.

칠릉떼는 개성시 해선리 만수산기슭에 떼지어있는 7개의 고려시기의 무덤입니다. 매개 무덤들은 산비탈면에 3단정도씩 단을 지어 일정한 자리를 차지하고있습니다. 무덤들의 무지는 둥글며 대개 밑부분에 병풍돌을 두르고 그밖으로 돌란간과 돌짐승들을 배치하였습니다. 무덤에 따라 돌사람과 상돌, 돌등, 망주석 같은 시설들을 배치한것도 있습니다.

첫째 무덤은 맨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며 일정한 크기로 자리를 잡고 3단으로 단을 지었습니다. 맨 웃단에 있는 무덤무지의 높이는 3. 35m, 직경은 11. 7m이며 그밑둘레에는 병풍돌을 댔습니다. 그리고 돌짐승 8개와 두쌍의 문인상과 무인상이 있습니다. 첫째 무덤으로부터 동쪽으로 가면서 무덤의 순서가 정해져있습니다.

둘째 무덤은 첫째 무덤의 동쪽에 있으며 무덤무지의 높이는 2. 6m, 직경은 약 10m이고 밑부분에 12각으로 된 병풍돌이 돌려져있습니다. 묘자리는 3단으로 되여있고 맨 아래에 경사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돌란간과 돌기둥, 2개의 망주석, 3쌍의 돌사람, 돌등이 남아있으며 돌등앞에 정자각터가 있습니다.

셋째 무덤은 둘째 무덤의 동쪽언덕우에 있으며 무덤들가운데서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있습니다. 묘자리는 3단으로 이루어지고 맨밑에 경사단이 있으며 거기에 정자각터가 있습니다. 맨 웃단에는 높이 2. 4m, 직경 7. 6m의 무덤무지가 있고 거기에 병풍돌을 돌렸으며 그밖으로 돌란간, 돌짐승, 망주석, 상돌을 배치하였습니다. 2단에는 문인상 한쌍과 돌등을, 3단에는 무인상 한쌍을 놓았는데 그 모든것이 규모가 조금 작을뿐 경효(공민)왕릉의것과 비슷합니다.

넷째 무덤은 셋째 무덤의 동쪽에 있습니다. 묘자리의 범위는 비교적 넓은 편이며 그 짜임새는 셋째 무덤의것과 비슷합니다. 맨 웃단에 있는 무덤무지는 높이 1. 3m, 직경 5. 6m입니다.

련이어 동쪽으로 나란히 있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무덤들은 그 규모와 짜임새에 있어서 서로 비슷합니다. 이 무덤들은 후에 수축하면서 그 모양새들이 처음의것보다 조금 달라졌으며 여러번 도굴당하여 심히 파손되였습니다. 일제침략자들은 여기에서 순금관장식, 순금부처를 비롯한 수많은 문화재들을 훔쳐갔습니다.

이 무덤들의 주인공들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있으나 무덤의 규모와 짜임새, 유물 등으로 보아 고려 말기 왕실과 관련된 사람들의 무덤으로 인정됩니다.

칠릉떼는 나라의 옳바른 문화유산보존정책에 의하여 잘 보존관리되고있습니다.

본사기자 전룡진

야화

범을 때려잡은 총각

충청도의 어느 산골에 스물여덟이 되도록 장가를 들지 못한 김삼길이라는 총각이 살고있었다.

삼길은 깊은 산속에 조를 심는외에 숯을 구워 팔아가며 늙은 부모를 봉양하고있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힘이 장사였다.

서늘한 바람이 부는 어느 가을날 삼길은 나무지게를 지고 산골짜기로 들어갔다.

그는 다래와 머루를 따먹는 재미에 어느새 깊은 골짜기에 들어왔는지도 깨닫지 못하였다.

지게를 내려놓고 나무할 차비를 하던 그는 문득 귀결에 녀자의 웃는 소리를 어렴풋이 듣게 되였다.

《아하하하… 호호호…》

무슨 흥이 나는지 자지러지는 녀자의 웃음소리였다.

그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귀를 도사리였다.

분명 젊은 녀자가 웃는 소리인데 갑자기 뚝 끊어졌다가는 이어지군 하는것이 아무래도 정상이 아닌것 같았다.

그는 웃음소리가 나는 곳을 향하여 살금살금 다가갔다.

건너편 산골짜기 으슥한 너럭바위우에서 커다란 범 한마리가 웬 처녀 하나를 물어다놓고 발로 앙가슴을 간지럽히며 놀리고있었다.

그것을 본 삼길은 나는듯이 달려들어 억센 두 팔로 범의 모가지를 휘감았다. 범은 《어흥-》하고 한번 크게 소리를 지르더니 잠간사이에 네다리가 축 늘어졌다.

아무리 산중의 왕인 범이라도 삼길의 힘을 당해낼수 없었던것이다.

삼길은 만일을 념려하여 범의 대가리를 바위에 둬서너번 부딪쳐 아주 부셔놓고말았다.

처녀는 범이 죽어넘어지자 아예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삼길은 급히 바위짬으로 흘러나오는 물을 손으로 떠다가 처녀의 입에 넣어주었다.

그리고는 처녀를 업고 산골짜기로 내려왔다. 집에 돌아온 삼길은 실신상태에 있는 처녀를 조심스럽게 눕히고 더운물과 미음을 쑤어서 그의 입에 넣어주었다.

한참만에 처녀는 정신을 차리였다. 처녀는 눈을 뜨고 이상한듯이 방안을 살펴보다가 문득 자기앞에 웬 사나이가 앉아있는것을 보았다.

처녀는 놀라서 몸을 일으키려고 하였으나 삼길은 부드러운 눈길로 그를 안심시켰다.

삼길의 부모들은 아들이 나무하러 갔다가 범을 때려잡고 처녀를 구해온 전후사연을 듣고나서 《인제는 너도 장가를 가겠구나.》하며 크게 기뻐하였다.

그러나 삼길은 안된다고 정색하여 말하였다.

그는 범에게 물려서 금시 죽게 된 사람을 구원한것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할 일인데 그것을 구실로 본인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안해로 삼을수는 없는것이라고 생각하였던것이다.

이튿날 처녀는 정신을 완전히 회복하였다.

처녀는 이웃고을에 사는 홍생원의 귀한 외동딸이였다. 처녀는 전날 밤 변소에 갔다가 범을 만나서 물린것까지는 생각되나 그후의 일은 의식이 몽롱하여 기억하지 못하고있었다.

처녀는 다 죽게 된 목숨을 구해준 삼길에게 무슨 말로 인사를 해야 할지 알수 없어하는데 총각은 몸까지 추세운 다음 집으로 가라고 말하였다.

처녀는 그 마음이 고마워 이것저것 생각하던 끝에 숯구이총각과 일생을 같이할 결심을 하였다.

그의 진정을 알게 된 삼길은 무척 기뻤으나 그럴수록 례의를 지키지 않을수 없었다.

삼길은 처녀가 몸을 회복한 후에 그를 데리고 홍생원의 집으로 갔다. 딸에게서 그동안에 있은 일에 대해 자세히 들은 홍생원은 삼길의 소행이 고마워 그를 선뜻 사위로 삼았다.

그후 그들은 서로 돕고 이끌면서 행복한 살림을 꾸려나갔다.

안해는 삼길에게 글까지 배워주었다.

하여 삼길은 나이 마흔이 거의 되였을 때 과거장에 나가 장원급제를 하고 벼슬에까지 올라 안해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본사기자

유모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어느 한 연회에서 한 로케트전문가가 흥분된 어조로 친구들에게 말했다.

《최근 우리는 몇마리의 쥐를 로케트에 실어 별나라에 보냈소!》

이 말이 끝나기 바쁘게 한 부인이 그에게 물었다.

《그렇게 쥐를 박멸한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을가요?!》

* * *

외세의존으로는 북남관계의 개선을 기대할수 없다

오늘 북남관계개선을 요구하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있다.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을 통일하려는것은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의지이다.

북남관계개선은 현시기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조선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기 위한 전제로 된다.

외세와 공조하여 동족압살책동에 미쳐날뛴 남조선괴뢰보수세력의 망동으로 하여 지난 9년간 북남관계는 최악의 파국상태에 놓여있었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자면 조선민족이 철두철미 외세의 간섭,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민족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해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지나온 력사를 통하여 알수 있는것처럼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결로 피해를 보는것은 우리 조선민족이며 그속에서 어부지리를 얻는것은 다름아닌 외세이다. 외세는 결코 북남관계가 개선되고 나아가서 우리 조국이 통일되는것을 바라지 않는다. 조국을 분렬시킨것도 외세이며 북남관계가 개선되고 북과 남사이에 긴장완화와 평화적분위기가 조성될 때마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찬물을 끼얹고 동족대결에로 부추긴것도 외세이다.

민족분렬의 장본인이며 조국통일의 첫째가는 장애물인 미국이 북남관계와 관련한 문제들에 끼여들어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저애를 주는것은 바로 우리 민족의 리익을 희생시켜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것이다.

미국이 공화국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를 두고 《위협》과 《도발》로 떠들면서 남조선에 핵항공모함과 핵전략폭격기를 비롯한 핵전략자산들을 계속 끌어들여 북침핵전쟁연습소동을 미친듯이 벌리고 《싸드》배치를 강행하고있는것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외세에 의존하여서는 언제가도 북남관계를 개선할수 없으며 오히려 북남관계개선에 저애만을 가져올뿐이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가 첨예할수록 외세에 대한 환상을 털어버리고 한피줄을 이은 우리 민족끼리 서로 협력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것은 지나온 력사가 새겨준 피의 교훈이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개선이 그 누구의 승인을 받아서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것이 결코 아니라는것을 명심하고 민족자주의 립장에서 북남관계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길에 나서야 할것이다.

북과 남이 힘과 지혜를 하나로 합치면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도 서로의 리익에 맞게 얼마든지 해결할수 있으며 극복 못할 난관이란 있을수 없다. 오늘 조선민족은 더이상 힘이 약해 외세에 국권을 빼앗기고 식민지 망국노의 운명을 강요당하였던 어제날의 약소민족이 아니며 자기 운명을 자기스스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능력을 가진 슬기롭고 힘있는 민족이다. 조선민족에게는 외세와 맞서 당당히 이길수 있는 강위력한 군사력과 충분한 경제적잠재력도 있다. 남조선당국이 자기 민족의 힘을 보지 못하고 아직도 미국을 비롯한 주변대국들과 여러 지역들을 찾아다니면서 핵문제, 북남관계문제에서 외세와 공조할 자세를 드러내고 또 미국에 의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조작된 대조선《제재결의》를 무턱대고 지지하는것과 같은 행위들은 시대착오적이며 반민족적인 매국배족행위로 된다.

남조선당국은 외세의존정책과 단호히 결별하고 민족자주의 립장에서 북남관계문제를 해결하는 길에 나서야 한다. 조상의 피가 스민 이 땅에서 나서자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국의 분렬을 가슴아파할줄 알아야 하며 그 아픔을 가시기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진실을 똑바로 보고 북남관계를 긴장격화에로 몰아가는 장본인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가려보아야 하며 민족의 지향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하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여야 할것이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김윤정

《최대의 압박》으로 얻을것이 무엇인가

미국이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에 군화발을 들여놓은 때(1945. 9. 8.)로부터 72년이 되였다.

미국의 남조선강점은 전조선반도를 집어삼키고 아시아와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속심에서였다. 그로부터 미국은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하여 반세기이상 군사적위협과 경제제재책동 등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매달려왔다. 어느 한시도 공화국에 대한 위협과 제재, 압박책동을 멈추지 않았으며 날이 갈수록 그 강도와 세기, 수단과 방법은 더욱 악랄해졌다.

새 세기에 들어와 집권한 부쉬행정부는 공화국과는 절대로 공존하지 않겠다는것을 정책화하였으며 공화국을 《악의 축》이라고 하면서 핵선제공격대상으로 공식 지정하고 핵위협을 전례없이 강화하였다.

부쉬행정부에 이어 집권한 오바마행정부는 집권초기부터 공화국이 제재와 봉쇄, 군사적위협에 못이겨 스스로 핵을 포기하거나 붕괴되기를 기다린다는 《전략적인내》정책이라는 것을 내놓고 그 실현에 달라붙었다. 그에 따라 《맞춤형억제전략》, 《작전계획 5015》 등 북침핵전쟁도발각본들을 짜놓고 핵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리였다. 이에 대처한 공화국의 자위적조치를 《위협》과 《도발》로 매도하고 국제무대에까지 끌고가 정치화, 국제화하면서 경제적으로 질식시키기 위하여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악랄한 대조선《제재결의》들을 조작하였다.

새로 집권한 트럼프행정부 역시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조선정책을 내놓고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속심을 여지없이 드러내고있다.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최대의 압박》의 주되는 내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군사적압박과 함께 국제외교무대에서 합법적인 주권국가인 공화국을 극도로 고립시키고 공화국의 자주적권리를 강탈하며 인민들의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허용하지 않겠다는것이다.

실지 트럼프행정부는 올해에 남조선괴뢰들과 《키 리졸브》, 《독수리 17》합동군사연습을 미친듯이 벌리면서 공화국의 《수뇌부제거》와 《제도전복》과 같은 국가테로범죄도 거리낌없이 감행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핵전쟁연습이 끝난 후에도 핵잠수함, 핵동력항공모함타격단들을 비롯한 핵전략자산들을 조선반도주변에 전개시켜놓고 공화국에 핵위협을 가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국제사회에서 공화국의 정치외교적지위를 각방으로 떨어뜨리고 완전히 고립압살하기 위한 별의별 추악한 모의를 다 벌리면서 세계에 대고 공화국과 협조하는 나라들에 제재를 가하겠다느니, 외교관계급수를 낮추라느니 뭐니 하면서 주권국가들에 위협과 공갈을 해댔다.

하지만 세기를 두고 이어온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상대의 힘과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저들의 망동이 빚어낼 엄청난 후과에 대해 생각지 않는 어리석은자들의 추태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력대 행정부가 장장 반세기이상 공화국을 붕괴압살하기 위하여 정치군사적, 경제적위협과 제재, 압박책동에 끊임없이 매달려왔지만 얻은것은 과연 무엇인가.

지난 세기 50년대의 조선전쟁에서 공화국은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았으며 부쉬행정부의 반공화국압살책동에는 핵보유로, 오바마행정부의 《전략적인내》정책에는 첫 수소탄시험의 성공과 핵억제력강화로 대답해주었다.

트럼프행정부의 《최대의 압박》도 다를바 없다. 공화국은 선임자들의 대조선정책의 실패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트럼프행정부에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시험발사,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 성공은 물론 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14》형시험발사를 단번성공시킨데 이은 2차 시험발사에서의 대성공 등 다발적이고 련발적인 군력강화의 뢰성으로 대답해주었다.

이것은 지금까지 폭탄 한발 떨어져본적 없는 미국본토가 공화국의 타격권안에 들어갔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에 대해 세계의 언론들은 미국이 공화국에 일방적으로 핵위협을 가하던 때는 이미 과거로 되였다고 보도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미국방장관 제임스 마티스는 기자회견에서 북조선문제가 군사적해결방향으로 간다면 《믿을수 없는 범위의 비극이 될것》이라고 하였으며 미태평양사령관 해리스도 트럼프행정부가 《최대의 압박과 관여》정책을 추진하고있지만 그것으로는 북조선을 무릎꿇게 할수 없다고 하였다.

한마디로 트럼프행정부가 《최대의 압박》으로 얻을것이란 미국의 쓰디쓴 패배의 력사를 답습하는것뿐이며 오히려 공화국의 핵억제력을 상상할수 없는 지경에로 올려세워주는 결과밖에 차례지는것이 없다는것이다.

부디 트럼프행정부에 부언한다면 10여년전 미국신문 《워싱톤 타임스》가 당시 부쉬행정부에 경고한 《제국의 위험》이라는 글에서 《…력사는 력사를 완전히 무시한 사람들에게는 종종 쓴맛을 보여주었다.》는 내용을 상기시켜줄뿐이다.

윤학수

상식

량 반

량반은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봉건지배계급을 말한다.

량반이란 말은 고려 초기 봉건관료체계에서의 문반과 무반을 문무량반이라고 한데서부터 나왔다. 그후 차차 이 두 반렬에 속한 사람들을 통털어 부르는 말로, 나중에는 문무관료가 될수 있는 특권층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 법전들에서는 통치계급신분을 량반이라는 말대신 사대부라고 많이 쓰고있다.

량반에는 수도의 대관료들로부터 시골량반에 이르기까지 여러 계층이 있었고 그 재산과 권력의 소유정도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량반의 대부분은 당시 사회에서 권력을 독차지하고 토지와 노비를 소유한 지주계급, 착취계급이였다.

량반은 문벌에 따라 그에 적합한 벼슬을 할수 있은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정치, 경제, 사회적특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았다.

량반관료체계는 조선봉건왕조의 멸망과 함께 무너졌다.

* * *

조선속담 (홀시)

- 가만바람이 대목을 꺾는다

약하게 가만가만 부는 바람도 큰 나무를 꺾을수 있다는 뜻으로 작고 보잘것 없는것이라고 하여 얕잡아보아서는 안됨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 숫돌이 저 닳는줄 모른다

조그마한 손해는 그때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그것도 쌓이면 무시할수 없다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 적은 물이 새여 큰 배 가라앉는다

작은 구멍으로 물이 새기 시작하여 마침내는 큰 배가 가라앉듯이 자그마한 실수나 흠으로 큰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에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 * *

조선의 《위협》을 떠드는 일본의 속심

최근 공화국은 미국의 가중되는 핵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핵공격수단과 전략무기개발에서 눈부신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이에 대해 세계 진보적인류는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미국의 군사적위협을 짓부셔버리는 위대한 장거,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세계앞에 보여준 빛나는 승리라고 평하고있다. 그러나 일본은 공화국의 자위적권리행사를 놓고 《위협》과 《도발》로 걸고들며 온갖 못된짓을 다하고있다.

일본의 이전 방위상들이였던 나까따니와 오노데라를 비롯한 극우익인물들은 워싱톤전략 및 연구쎈터라는데서 저들이 작성한 그 무슨 《트럼프시대 일본의 대조선정책》에 대해 력설하면서 조선반도가 긴장한 정세에 직면하였다느니, 일본에 대한 조선의 위협이 더욱 커가고있다느니, 그에 대한 준비를 잘해야 한다느니 하며 횡설수설해댔다. 특히 공화국의 탄도로케트위협에 대처해서는 선제타격을 포함한 어떤 선택도 배제하지 않을것이라는 나발도 불어댔다. 이보다 앞서 그들은 그 무슨 건의서라는데서도 조선의 위협에 대처하여 정부가 미국의 《싸드》를 한시바삐 구매하여 배치해야 한다고 우겨댄바가 있다.

하다면 있지도 않는 공화국의 《위협》에 대해 떠들며 분주탕을 피우는 일본의 속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공화국의 《위협》을 여론화하여 저들의 무모한 망동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국내외 여론의 지지를 얻어 군사대국화와 재침책동에 박차를 가해보려는데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미국의 《토마호크》순항미싸일을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에 탑재하는 방안이 론의되고있다. 지어 순항미싸일에 의한 공화국의 탄도로케트발사기지 파괴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고있으며 이를 위한 자금을 래년도예산안에 포함시킬 계획까지 세우는 한편 군사비지출을 대폭 늘이고있다. 그리고 선제공격형의 무력으로 전환된 일본《자위대》를 미국의 비호밑에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뻐젓이 진출시키고있다.

뿐만아니라 미국의 무모한 침략전쟁책동에 입김을 불어넣고 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면서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달성해보려 하고있다. 이미 지난 3월과 4월에 미국이 전면핵전쟁연습인 《키 리졸브》, 《독수리 17》합동군사연습으로 군사적압박수위를 최대로 높이면서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선택》, 《선제공격》을 들고나오자 때를 만난듯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정객들이 나서서 남조선에 있는 《일본인구출》의 미명하에 《자위대파견》을 제창하는 등 조선반도에 대한 재침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낸 일본이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일본이 미국과의 침략적인 공동훈련을 벌리다 못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 합동군사연습을 벌리면서 조선반도유사시 미국주도의 련합군에 합세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있는것이다. 그런가 하면 보도수단을 통하여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면 저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여론을 내돌리고 공화국이 화학무기를 사용할수 있다고 떠들어대면서 사회적으로 대조선적대시분위기를 조성하며 군사대국화와 재침에 제동을 거는 헌법을 뜯어고치려 하고있다.

일본의 이 무분별한 망동으로 하여 지금 일본의 정치풍토는 군국주의침략광기에 질게 물젖어있으며 사회전반이 극우익으로 완전히 기울어지고있다.

패망후 오늘까지 일본의 어느 정권이나 할것없이 군사대국화와 재침야망실현에 광분하였지만 지금처럼 《평화국가》의 허울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로골적으로 책동한 정권은 없었다.

일본의 재침은 시간문제로 되고있다. 그러나 력사는 과거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자기를 과신하며 침략과 전쟁을 일삼다가 종당에는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하였다는것을 똑똑히 새겨주고있다.

일본은 공화국의 《위협》을 떠들며 과거 저들이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는것이야말로 등불에 날아들다 타죽는 부나비의 어리석은짓이라는것을 명심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본사기자

조선의 관광

영화촬영거리

평양시 형제산구역에는 영화촬영거리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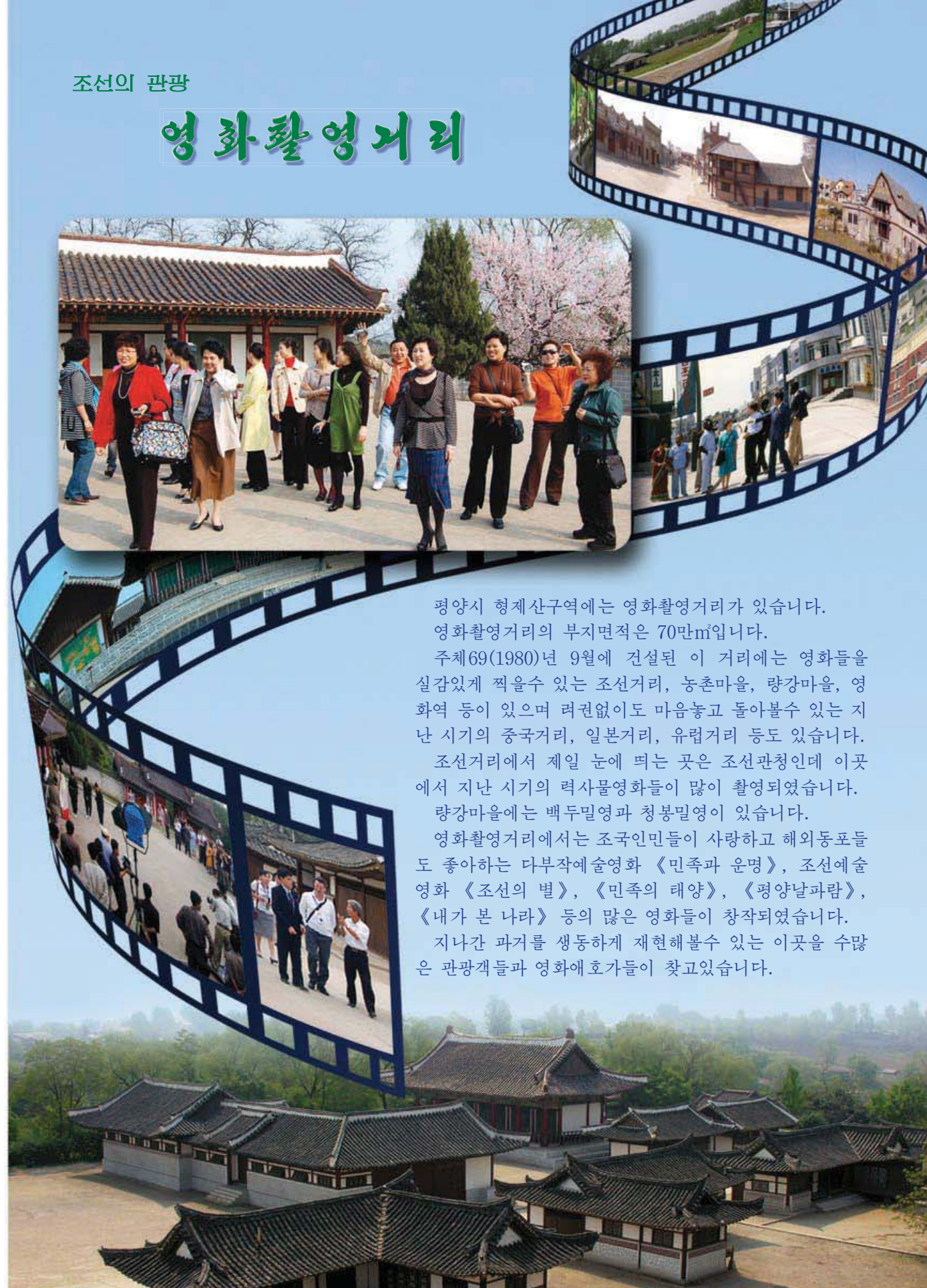
영화촬영거리의 부지면적은 70만㎡입니다.

주체69(1980)년 9월에 건설된 이 거리에는 영화들을 실감있게 찍을수 있는 조선거리, 농촌마을, 량강마을, 영화역 등이 있으며 려권없이도 마음놓고 돌아볼수 있는 지난 시기의 중국거리, 일본거리, 유럽거리 등도 있습니다.

조선거리에서 제일 눈에 띄는 곳은 조선관청인데 이곳에서 지난 시기의 력사물영화들이 많이 촬영되였습니다.

량강마을에는 백두밀영과 청봉밀영이 있습니다.

영화촬영거리에서는 조국인민들이 사랑하고 해외동포들도 좋아하는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조선예술영화 《조선의 별》, 《민족의 태양》, 《평양날파람》, 《내가 본 나라》 등의 많은 영화들이 창작되였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생동하게 재현해볼수 있는 이곳을 수많은 관광객들과 영화애호가들이 찾고있습니다.

정방산의 낚시터　　본사기자 최원철

기암절벽들과 울창한 수림이 한데 어울려 경치 아름다운 정방산, 산골짜기에 낚시터마저 펼쳐져있으니 정방산의 이채로움을 더해 주는듯싶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ㄱ—782149
http://www.naenara.com.kp(조문, 로문)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